

두산인문극장 2022

공정

Fairness



두산인문극장

2022

공정(Fairness)

두산인문극장

2022

공정(Fairness)

강연

퍼낸 날

2022년 7월 7일

제작

두산아트센터

지은이

최정규

김호

천관울

송지우

김학진

임소연

김정희원

김원영

기획

두산아트센터

이음

‘두산인문극장2022: 공정’은 2022년 4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두산아트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두산인문극장 2022: 공정’ 강연록의 저작권은 두산아트센터와
저자들에게 있습니다.

공정(Fairness)

‘공정함’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이것은 ‘공정함’에 대한 지향이 늘 가장 좋은 사회에 대한 추구였지만, 한편으로는 이 가치를 두고 갈등이 첨예하고 사회가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이 갈등은 대통령선거를 지나면서 더 크게 부각이 되었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요구, 기회 측면에서의 요구, 그리고 철학적 측면에 대한 검토 등이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정’에 대한 열망을 좀 더 이해하는 이유는 이 문제의 뿌리가 깊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한 해를 건넜지만 지난 10년간 두산인문극장은 변함없이 현재의 가장 긴급한 이슈를 제기하고 토론하고 예술로 풀어 보였다. 이번에도 경제학, 정치학, 언론학, 역사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들이 ‘공정’이라는 주제를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이 주제는 첨예한 다른 주제들과 또 교차하는데, 그것은 빈곤, 불평등, 젠더, 장애 등의 주제들과 만나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낳는다. 강연을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끝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두산인문극장 2022

두산인문극장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과학적, 인문학적, 예술적 상상력이 만나는 자리다. 상상은 현실에 갇혀 있다.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대부분의 상상력의 한계는 물질문명이 제공하는 테두리에 막힌다. 그 테두리를 확장하는 모험을 하지 않고 새로운 상상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길이 없다면 새로이 길을 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두산인문극장은 새로운 상상력의 원천이 될 미지의 땅에 길을 내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2013년 ‘빅히스토리: 빅뱅에서 빅데이터까지’를 시작으로 2014년 ‘불신시대’, 2015년 ‘예외(例外)’, 2016년 ‘모험’, 2017년 ‘갈등’, 2018년 ‘이타주의자’, 2019년 ‘아파트’, 2020년 ‘푸드’를 지나 올해는 ‘공정’으로 관객들을 만났다.

두산인문극장 2022: 공정(Fairness)

공연

5.17~5.29	연극	〈당선자 없음〉	작: 이양구, 연출: 이연주
6.7~6.25	연극	〈웰킨〉	작: 루시 커크우드(Lucy Kirkwood), 번역: 김수아, 연출: 진해정
7.5~7.23	연극	〈편입생〉	작: 루시 서버(Lucy Thurber), 번역: 한원희, 연출: 윤혜숙

전시

4.20~5.25	Skyline Forms On Earthline	작가: 김민정, 문서진, 최태윤, 황예지
-----------	----------------------------	------------------------

강연(다시 보기: 두산아트센터 유튜브 [youtube.com/doosanartcenter](https://www.youtube.com/doosanartcenter))

4.4	19:30	‘공정’이란 무엇인가?	최정규
4.11		대한민국 능력주의의 뿌리	김호
4.18		공정의 역습-우리 시대 청년들의 ‘공정’	천관울
4.25		공정과 불평등	송지우
5.9		공정함을 원하는 뇌, 그리고 행동	김학진
5.16		공정과 성차, 그리고 과학	임소연
5.23		공정, 미래 조직의 핵심 가치	김정희원
5.30		비례적인 권리와 반비례적인 사랑	김원영

차례

1강	‘공정’이란 무엇인가? 최정규	8
2강	대한민국 능력주의의 뿌리 김호	22
3강	공정의 역습-우리 시대 청년들의 ‘공정’ 천관율	41
4강	공정과 불평등 송지우	55
5강	공정함을 원하는 뇌, 그리고 행동 김학진	61
6강	공정과 성차, 그리고 과학 임소연	94
7강	공정, 미래 조직의 핵심 가치 김정희원	110
8강	비례적인 권리와 반비례적인 사랑 김원영	116

1강

‘공정’이란 무엇인가?

최정규

경제학자.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제도와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들의 진화 과정에 관심을 두고 사회적 딜레마의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이타적 인간의 출현』, 『게임이론과 진화 다이내믹스』가 있고, 옮긴 책으로 『승자의 저주』 등이 있다.

들어가며: 공정을 앞세운 대대적인 보수화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대선을 마치고 2번을 선택한 사람들 10명 중 4명이 정권교체를 원해서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선 결과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진단은 그 분야 전문가들이 내놓을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20대 남성들의 “이탈”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존 대선에서 전통적으로 민주당 후보의 표밭으로 여겨져 왔던 2-30대의 이탈이 두드러졌는데(사실 이런 흐름은 이미 19대 대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20대 남성들 중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보수 후보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이들의 이탈의 이유에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공정이라는 관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로 20대 남성들의 이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감지되어 왔던 현상이기도 했는데, 그 이탈의 중심에 그들이 내세우는 “공정”이 있었다면, 이번 선거 결과는 그동안 정부가 그들의 “공정”을 적절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해왔는지를 곰곰이 곱씹어 봐야 할 과제를 던져주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 누구나 바라는 사회의 모습이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상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생각과 주장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흔히 공정한 사회를 스포츠 경기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반칙 없이 주어진 룰을 지

키며 경기에 임하는 게 중요하고, 또 경기가 그렇게 진행되어야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 간단한 원칙이 우리가 사는 복잡한 사회에 적용되려면 고려해야 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스포츠 경기와 달리 사회에서는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다른 여러 가치들이 있고, 때로는 공정이라는 가치는 여타 가치들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려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궁금한 건, 공정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왜 사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가입니다. 사실 진보적 성향을 가져야 할 것 같은 사람들(젊은 층, 혹은 저소득층이나 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들)의 대대적 이탈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당선 이후 백인 저소득층의 이탈 이유를 둘러싸고 여러 논의들이 있었는데, 다들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들에게서 미국 복지제도나 소수자 우대정책에 대해 갖고 있는 적대적 감정(이러한 적대적 감정에는 그러한 제도와 정책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물론 민주당의 엘리트주의와 이중성에 대한 반감도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대의 보수화에 대한 진단들

공정함을 내세우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연대의식의 결여, 약자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더 이상 공정은 우리가 추구

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고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특세가 사람들을 각자도생의 길로 이끌었고,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돌보느라 타인들(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졌다는 진단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벼랑 끝에 다다랐기에 여기서 한 걸음만 양보했다가는 되돌아올 수 없는 나라에 빠져버릴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 이들이 자신들의 몫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버팀목으로 공정을 내세우는 것이라면, 그 속에서 타인(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에 대한 공감을 찾기 힘들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진단이 맞다면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는 더 이상 협력적 체계를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사회에서라면 공정이란 서로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면서도 적어도 반칙은 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합의 정도로만 남게 될 것이고, 연대와 같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다른 가치들과는 충돌하는 것으로만 이해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이라는 지향이 상위 1%에 대항하는 10%의 지향일 뿐, 나머지 80%가 견지해야 할 가치는 아니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단이 맞다면 공정은 더 이상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아닐 뿐 아니라, 지향해선 안 되는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많은 분들이 보수로 회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정 관념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갖는 공정이란 관념이 “절차적 공정” 혹은 “기회의 공정”으로만 이해되면서, “실질적 공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지적은 더 나아가 최근 많이 이야기되는 능력주의에 대해 그것

이 갖는 한계를 비판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출발선이 달라 얻게 되는 결과가 다르다면, 그리고 남보다 뒤쳐져 출발하게 된 것이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원인 때문이 아니라면, 그것을 바로잡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능력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드러날 때에도, 그 능력의 차이가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혹은 '능력'이라는 게 제대로 측정될 수 없는 것이거나 다면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배분 역시 공정하지 않은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공정을 바라는 마음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공정은 내가 피해받지 않으려는 노력 정도로만 그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게 현재 한국사회에서 공정이 연대라는 또 다른 가치와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정함에 대한 우리의 바람은 절차적 공정을 넘어 실질적 공정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개인들이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극소화하는 데까지 우리의 바람이 확장되어야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특정 집단의 “보수화” 현상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세상이 각박해져서 사람들이 자신만을 돌보는 데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진단이나, 그래서 이들에게는 더 이상 함께 사회를 협력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연대의식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식의 진단만으로는 이들의 보수화 경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내세우는 공정이 말뿐인 것 혹은 왜곡된 것으로만 치부하는 것도 일면적인 진단

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들의 이탈의 근저에 있는 분노를 적절히 표현할 언어의 부재도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들의 저항과 불만의 저변에 깔린 일종의 심리적 토대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에서 출발하여, 기존 공정을 둘러싼 논의 속에서 개념화되지 못한 이들의 지향점을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된 그들의 모습이 왜 보수화로 치닫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공정하다는 인식이 협력의 기초가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행동할 때 그리고 의사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를 연구해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기존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타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물론 누구나 혹은 언제나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이러한 행동 패턴을 가리켜 때로는 이타주의적이라 칭하기도 하고 협력적이라고 칭하기도 했고, 혹은 타인을 고려하는 선호 체계를 갖는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타주의적/협력적 행동이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타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

향으로 행동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내 행동의 수혜자 역시 나와 같은 의도를 갖고 있다는 믿음이 있거나 혹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을 가리켜 “조건부로 협조적”이라고 혹은 “호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타인과 협력하고자 하지만, 타인이 협력의 규범으로부터 이탈한다면 이를 징계하거나 혹은 자신의 협력을 철회함으로써 타인의 이탈에 대응합니다. 때때로 이런 행동은 행위자 자신에게 어떠한 형태로도 이득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나타나곤 하는데, 그런 경우를 가리켜 행위자가 “강한 호혜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실험연구나 사례연구를 통해 이러한 행동 패턴이 지속적으로 목격된다는 사실이 보고되어 왔으며, 이처럼 어떤 형태로든 이득을 주지 못하는 행동 성향이 어떻게 오랜 역사 속에서 살아남고 퍼져나갈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연구결과들도 계속 발표되어 왔습니다.

사회가 혹은 집단이 제대로 서려면, 그 구성원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구성원들의 협력에 무임승차하려는 사람들을 극소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무조건적인 협조적 태도, 이타적 성향만으로는 무임승차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협조는 무임승차 경향을 억제하기는커녕 그들에게 계속 이득만을 건네주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무임승차자들이 언제나 더 높은 보수를 누린 채 사회를 가득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협조적 태도가 조건부적이라면(다른 말로 호혜적이라면), 우리 앞에 펼쳐질 광경을 사뭇 다르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

이 자신과 같은 성향을 가졌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혹은 그렇다고 믿는 경우에만 기꺼이 그들과 협력을 하려 할 것이고, 상대가 무임승차자임이 드러나는 경우 이들에 대한 협력적 태도를 곧바로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무임승차자들로 부터 보호하면서 집단 내 협력을 이루어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즉 타인과 협력하려는 성향을 갖지만 오직 타인도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존재는 사회에서 협력을 유지하고 무임승차를 효과적으로 막아 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한 호혜성이 타집단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결합할 때

강한 호혜성의 존재를 둘러싸고 연구가 진행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납니다. 첫째, 강한 호혜성이란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행동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협력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대규모로 일어나고, 또 협력의 대상을 생면부지의 상대로까지 확장할 수 있었던 기초가 됩니다. 인간 사회에서의 협력은 혈연 범위를 넘어서까지 확장되고, 혹은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상호 관계가 기대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서도 발견되곤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

리가 강한 호혜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둘째, (이것이 우리의 논의에서 중요한 데) 우리의 협력적 성향이 강한 호혜성을 기초로 나타난다면, 우리의 협력적 성향이 실제로 발휘되는 데에는 타인도 우리와 같은 성향을 갖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강한 호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타인이 그런 성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혹은 타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협력을 철회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이들이 보이는 행동은 애초부터 타인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강한 호혜성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이중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들은 타인들의 협력적 성향이 기대되는 상황에서는 협력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순간적으로 협력을 철회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협력의 쇠퇴를 이끄는 장본인이 되기도 합니다.

강한 호혜성이 협력으로 나타나기 위해 타인에 대한 기대가 중요하다는 것은 강한 호혜성이 갖는 어두운 측면을 말해줍니다. 강한 호혜성은 우리의 협력이 때로는 매우 편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한 호혜성을 갖는 이들은 내부인들에 대해서는 협력적이면서도 외부인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외부인의 협력적 성향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남”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떤 탄탄한 근거를 갖고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심리학 연구들이 “아”와 “타”가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이유로 형성되면

서, 외부인에 대해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강한 호혜성은 다른 인종, 다른 종교, 다른 민족들에 대한 혐오나 사회 내 억압받고 소외당하여온 계층에 대한 혐오와 배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남”에 대해서 그들의 협력적 성향을 쉽게 의심함으로써 좀처럼 협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와 “남”을 쉽게 갈라치기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강한 호혜성이 편견과 결합하는 경우 우리는 그 어두운 측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는 그 “우리”와 “남”의 구분, 혹은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상대로서의 “우리”와 우리에게 무임승차하려는 “남”의 구분이 편견과 곡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작 피해자는 “나”인데, “그들(혹은 그녀들)”이 사회 배려라는 이름으로 협력의 수혜를 앗아간다는 믿음, 그러한 잘못된 믿음하에서 그들을 배제하려는 성향을 갖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공정으로의 강한 지향이 특정 지역에 대한, 여성에 대한, 혹은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에 대한 혐오로 드러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자신들이 혐오를 무임승차자에 대한 혐오로 규정하면서 말이지요.

긴 얘기를 거쳐서 원래 하고자 하는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현재 “공정”을 내세우면서 약자에 대한 포용과 연대를 거부하는 지금 20대 남성들의 모습 속에서 강한 호혜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현재 20대 남성들의 모습은 강한 호혜성이 편견과 결합할 때 드러나는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편으로 이들은 실험실에서 집단의 무임승차자의 존재가

확인되었을 때 협력을 철회하는 호혜적 인간들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이들은 협력의 결과가 호혜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협력으로부터 만들어진 성과물을 누군가가 가로채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회제도가 협력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부당하게 몫을 챙겨가는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그러하다면, 이들로부터 사회의 협력적 기획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누군가를 무임승차자라고 규정지을 때, 즉 사회적 협력이 낳을 성과물을 정당하지 않게 가로채려 한다고 믿는 “그들”이 누군지를 규정지을 때, 그 판단이 편견에 쉽게 휘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듯, 강한 호혜성이 그렇게 편견과 맞물릴 때 결과는 비극입니다.

글을 마치며: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사람들이 본인이 힘들고 또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해서, 곧바로 타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몫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협력적이지 않은 것처럼, 즉 이기적인 것처럼 행동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몫만을 챙기고 협력할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어딘가에 누군가가 자신보다 더 어렵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기여하고 협력해서 얻어진 성

과몰을(혹은 그 일부를) 가로챌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두려움이 경험적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두려움의 근원에는 편견이 있습니다.

공정이 절대적인 가치는 아닐 겁니다. 더 나아가 공정하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라고 말해줄 수 있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공정한지 불공정한지를 본능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모호할지 몰라도 공정함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내가 사회에 혹은 집단에 구성원으로서 거기에 협력하는 전제조건으로 말입니다. 이기적이라서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협력을 철회하는 사람들도 많다면, 구성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이기적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협력이 이루어지고 그 성과를 나누는 전 과정이 공정할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공정이라는 관념의 기저에는 호혜성과 응분이라는 두 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타인이 협력한다면 나도 협력하는 게 공정할 뿐 아니라, 내가 협력한다면 타인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호혜성 원칙입니다. 그리고 내 협력이 낳을 성과물은 그런 호혜성을 갖고 집단적 기획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돌아갔으면 한다는 것이 응분의 원칙입니다. 강한 호혜성은 협력 성향이라는 점에서 협력을 만들어낼 동력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성향이 조건부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전 과정이 공정할 것이라는 기대가 충족될 때만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발현될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하여 성숙한 단계에 도달하면, 어떤 제도가 도입될 때 구성원 “모두에게” 물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일반적인 거지요. 굳이 세금을 늘리지 않은 채 특정 부분의 지출을 줄이고 다른 부분의 지출을 늘리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이득과 손해가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몫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언제나 유쾌한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이 과정이 언제나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들을 억지로 강제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이때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만일 이들이 전적으로 자신의 몫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러한 몫의 재분배가 호혜와 응분에 따라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입니다.

사회라는 대규모 협력체계에 구성원으로서 참여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배제된 계층에 대한 보호에 합의하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사회경제적 배경 때문에 출발선이 뒤쳐져 있다면 이들의 출발선을 바로잡아주고, 이를 위해 소수자 우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사회적 약자이고 배제된 자들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누구나 자신을 위주로 판단하기 마련이고, 타인에 대한 시각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 비해 덜 관용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늘 나보다 덜 어려운 사람들이 약자로 규정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왜 그들이 약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그들 개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합니

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잘못된 기대는 수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배제된 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이들을 협력적 기획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수단임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원이 무임승차자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갖는 핸디캡을 보정함으로써 이들이 평등한 주체로 협력적 기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출발임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로 잡힌 출발점하에서 이들이 협력적 기획에 주체로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정은 반칙이 없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정이라는 지향에는 호혜성과 응분이라는 감정적 토대가 있습니다. 공정은 내가 몸담고 사는 사회가 협력적 체계임을 확신하게 해주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사회구성원들이 협력적 기획에 참여할 것이고, 참여한 사람들은 그러한 참여로부터 응당 받아야 할 몫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충족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이타적으로 만들어야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이기적이지 못하도록 강제해야만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타인도 나와 다를 바 없으며 내가 그러한 것처럼 타인도 사회의 협력적 기획에 기꺼이 참여할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런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 그럴 수 있도록 타집단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는 것, 그것이 협력적 사회를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2강

대한민국 능력주의의 뿌리

김호

역사학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선 의료사 연구와 더불어 조선사회의 범죄와 그에 따른 처벌 등에 관심을 갖고 통치의 제도화, 정치의 윤리 등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조선후기에 신분제 사회에서 능력주의 사회로 전환하는 지점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정조의 법치』,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100년 전 살인사건』 등이 있다.

1. ‘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

글머리를 조선통신사 일행이 일본의 학자들을 만나 담론했던 일화로 시작해 볼까 한다. 17~18세기에 일본에 갔던 조선 사람들은 에도의 봉건제를 비판했다. 혈족에 의한 승계는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실력 없는 자들이 자리를 차지한다는 비판이었다. 조선은 과거를 통해 관료를 선발하고 이들이 여러 관직에 나가고 지방을 통치한다. 조선의 각종 전장과 제도는 한마디로 능력주의의 상징처럼 논의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일본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 봉건의 세습으로 대우하고 이를 통해 충성하는 마음을 이어가도록 하지만, 조선인들은 능력과 업적만을 평가하므로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하들은 쉽게 조정을 버리고 왕도 신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 없이 바꾸어버린다고 비판했다. 조선의 충성심이 희미하고 나라가 취약한 이유라는 비판이었다.¹

과연 한 나라의 정치가 쇠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대로 세습하여 대접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능력에 따라 자원을 분배하지 않아서일까? 강진에 유배갔던 정약용은 흑산도에 머물던 형님 정약전에게 편지를 보내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다. 귀양 초기 다산은 종종 장문의 글을 보내 형님과 다양한 문제를 논의했다.² 이 중에 두 사람의 이견도 드러나지만 합의한 바가 많았는데 둘이 극구 논의를 합치한 경우가 바로 봉건에 대한 비판이었다. 요순시대의 정치와 제도가 모두 아름답지만 봉건제는 예외라는 것이다. 조

신의 경우 봉건제보다는 군현제가 이상적인 통치제도라는데 두 형제는 절대 동의했다.

삼대의 법 가운데 모든 것이 좋지만 봉건제만은 천리가 아니다. 특별히 시제가 그러했을 뿐이다. 왜 그러한가?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한번 공덕(功德)이 있으면 불초한 자손이 모두 부귀를 누리니, 어찌 우리나라의 세벌(世闕)에서 사람을 취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옛날에 백성들은 우매하고 미약하므로 눈을 부라리며 힘센 자들이 그 사이에 태어나면 백성(衆氓)을 겁박하고 스스로 군장(君長)이 된다. 이들이 세력을 다져 드디어 왕(王)이 되었는데 그 왕을 축출할 수 없으므로 그 세력을 인정하여 봉건을 할 뿐이었니 반드시 천리(天理)의 그러한 바는 아니다.³

정약용과 정약전 형제는 봉건과 같은 세습은 천리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르면서 점차 부와 귀의 세습이 공고해지면서 ‘봉건’의 형세를 떠나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능력에 따른 대우야말로 공평하다는 생각은 오랜 시간 조선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상식이었고, 조선은 기본적으로는 신분제 사회이면서도 그래도 능력 있는 자들이 과거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⁴

다산은 장문의 편지를 통해 중국 고대의 이상정치를 상징하는 요순시대야말로 진정 ‘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던

사회였다고 형님께 고백했다.

최근 몇 년 이래 당우(唐虞)의 통치하던 법을 깨달았습니다. 후세에 비교해 보면 엄혹(嚴酷)하고 치밀하여 물 한 방울 새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당시를 두고 순박하고 여유로울 뿐이었는데도 천하가 저절로 다스려졌다고 말하는데 이는 가당치도 않은 이해로 어리석은 자[下愚]의 생각일 뿐입니다.⁵

다산은 요순 태평성세의 근원을 깨달았다고 형님께 자랑했다. 《서경》을 읽고난 후 통치의 근원이 세밀한 ‘고적(絜積평가)’ 시스템에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무위이치’를 운운하면서 요순시대에 천하가 저절로 평화로워졌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들의 논의일 뿐이라고 다산은 일축했다.⁶

그렇게 되는 까닭을 살펴보건대, 고적(考績)이라는 한 가지 일이 그것입니다. 당시에 고적하던 법은 요즘 세상의 여덟 글자로 된 제목(題目)처럼 소루하고 영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본인으로 하여금 직접 임금 앞에 와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하게 하였으니 잘못된 것을 거짓으로 꾸밀래야 꾸밀 수 없고 잘한 것을 겸양할래야 겸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을 다 아뢰고 나면 말을 고험[考言]하는 법이 있는데, 말을 고험하는 것이 고적입니다.

요순의 삼대가 훌륭했던 이유는 바로 관리들이 직접 왕의 앞에 나서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 즉 업적에 대해 하나하나 보고하고 심사받는 제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약용은 조선후기 사회의 쇠퇴야말로 공평한 업적 평가에 따른 운영이 결여되어 능력도 없는 이들이 부와 귀를 세습하기 때문에 점차 공정사회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한마디로 ‘요순시대’의 이상을 회복하려면 능력과 업적을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다산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역사적 고증’을 시도했다. 이른바 다산의 평생 학문은 능력주의 사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특히 사서삼경 가운데 요순의 정치를 서술하고 있는 《상서》에 대한 다산의 주석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까지 심혈을 기울인 마지막 저작이 바로 상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그만큼 능력주의 사회에 대한 그의 바람이 컸다. 그리고 능력주의에서 <왕>도 예외가 아니었다. 다산은 능력이 없다면, 즉 백성의 삶을 안정시킬만한 자질이 부족하다면 비록 조선의 왕이라도 그 <지위>를 능력 있는 후계자에게 넘겨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직접적으로 주장할 수 없었지만, 다산은 요순시대의 ‘선양’은 그동안 해석되었던 덕을 갖춘 이를 넘어 ‘경제제민의 능력과 실행력이 있는 자에게로 전위(傳位)’에 다름 아니었다고 해석했다. 혁명은 반드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었다. <능력에 기초한 공정분배>를 추구하는 혁명적 개혁이야말로 다산의 최종 견해였다. 젊은 시절부터 다산이 강조했던 천명의

바뀐 무력의 방벌(放伐)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로의 선양으로 정의되었다. 사실, 왕위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책임 재상’을 임명하는 것이 현실적이었다. 다산은 순임금이 우공을 등용한 이유는 단지 치수 사업을 맡기는 데 있지 않았다고 보았다. 우공의 통치 능력을 확인한 순임금은 곧 선양을 마음먹었다. 이것이 요순 정치의 핵심이었다.

능력주의와 이에 기초한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은 단지 자본주의의 기제라든가 현대 한국 사회의 숨겨진 욕망만은 아니었다. 조선 후기 적어도 상당수의 지식인들을 포함한 인민대중은 혈연이나 지연이 아닌, 혹은 학연(서원 등의 학통)이 아닌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원을 분배받기를 기대했다. 이를 두고 필자는 감히 ‘한국 능력주의의 뿌리’라고 말하고자 한다. 물론 이때의 능력주의는 결과주의-결과가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는 의미에서-와는 다르다. 특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에 도달하려는 태도는 전혀 아니다. 적어도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의 덕성 즉 ‘구덕(九德)’의 수양을 전제한 능력주의였다. 이를 (유교적) 현능주의라고 부르든, 그저 메리트크라시(meritocracy)로 부르든 간에 ‘공평한 능력주의’에 대한 환상은 현대 우리 삶의 오래된 관성으로 작동하고 있다.

2. 부(富)와 귀(貴)의 공평한 분배

다산은 1834년 《상서고훈》을 완성한 후 하늘이 도와 완성한 책

이라고 자평했다. 73세의 나이에 이루어낸 대단한 업적인 만큼 감회가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신이 ‘직접’ 자료를 초록하고 ‘직접’ 편(編)과 집(輯)을 도맡아 이루어낸 성과라고 흐뭇해했다. 동시에 본인의 독창적인 ‘창견’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싶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심지어 죽기 전에 완성할 수 있어 다행이라 했을 정도였다. 그만큼 이 책의 주장이 중요했다.⁸

이 책에서 다산은 요순시대의 정치는 <능력에 기초한 업적주의>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다산의 경제론은 그동안 알려졌던 대로 ‘균분(均分)’이라기보다 ‘능력에 따른 공평한 분배’였다. 다산의 가장 급진적인 토지개혁론으로 알려진 여전제 역시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아닌 능력에 따라 그리고 노력한 만큼 나누어 가지는 구조였다. 함께 일하지만 나누는 몫은 각자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달랐다. 그는 평생 동안 이러한 생각을 바꾼 적이 없었다.

매양 하루하루 일할 때마다 여장(閭長)은 (일한 만큼) 그 일수(日數)를 장부에 기록하여 둔다. 그래서 추수 때 그 오곡(五穀)의 곡식을 모두 여장의 당(堂)에 운반하여 그 양곡을 나누는데, 먼저 정부에 세금을 바치고, 그 다음은 여장의 녹봉을 바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날마다 일한 만큼 장부에 따라 분배한다. 가령 곡식을 수확한 것이 천곡(千斛)[10두가 1곡이다]이라면 그 장부에 기록된 일한 날이 2만 일이면 매양 하루당 양곡 5승을 분배받는다. 어떤 사람의 경우, 그 부부와 아들과 며느리의 장부에 기록된 역사 일수가 모두 8백 일이면 그 분배된 양곡은 40곡이다. 또 어떤

사람은 장부에 기록된 역사 일수가 10일면 그 분배된 양곡은 4두뿐이다.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은 양곡을 많이 가져가고 노력하지 않은 이는 적게 얻으니 그 힘을 다하여 많은 양곡을 타려고 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사람들이 모두 그 힘을 다함으로써 토지에서도 그 이익을 다 얻게 될 것이다. 토지의 이익이 일어나면 백성의 재산이 풍부해지고, 백성의 재산이 풍부해지면 풍속이 순후해지고 효제가 행해지게 될 것이니, 이것이 토지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능력껏 그리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야말로 공평했다. 노력 이상의, 능력 이상의 몫을 받는다면 바로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였다. 다산은 노력에 따라 <富>를 분배받고, 능력에 따라 <貴>를 배분함으로써만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¹⁰

다산이 보기에 18세기 후반 조선은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 <능력>하지 않는 데도 너무 많은 재산을 소유하거나 <능력>이 없는 데도 귀한 자리를 독차지하는 이들이 늘고 있었다. 일부가 지나치게 많은 부와 귀를 갖게 된다면 많은 사람이 해를 입을 뿐이었다. 다산은 능력에 따른 '부와 귀의 공정한 분배'야말로 조선 후기 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다. 공동체가 공생하는 방법은 오직 '능력과 노력에 따른 부와 귀'의 분배에 달려 있었다.

소위 '생생(生生)'이란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말이다. 무

롯 많은 이들이 함께 살려면 <자신의 노력만큼 누리(自食其功)>
야 하는데, 한두 사람이 많은 사람의 재화를 모두 모아들인다면
백성들이 해를 입게 된다.¹¹

먼저 부의 재분배는 ‘세금과 부역’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가
능했다. 다산은 조선 후기에 이른바 대동법으로 대표되는, 토지에
지나치게 과다한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
다고 주장했다. 토지에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세원을 파악하여 국
가 재정을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다산은 토지를 포함하
여 주택과 가축, 어장(漁場)과 염전 등 다양한 소유물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요순의 시대는 가능한 궁민(窮民)들에게는 부
역과 토공(土貢)을 덜어주어 민력을 펴게 했다고 강조하고, 노력한
만큼 부를 축적할 수 있지만 가진 만큼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선의 법은 인구가 늘어도 부(賦:잡세 일반)를 거두지 않고, 주택
을 거대하게 지어도 부를 거두지 않는다. 산택에 대해서도 금
하는 바가 없고, 시장에도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마소를 파
악하는 장부가 없고, 배와 수레도 역시 수세의 제도가 없다. 수
천 그루의 배와 감, 대추와 밤나무가 산과 들을 덮어도 상관하
지 않는다. 오직 병자와 홀아비 같은 호소할 데 없는 궁민(窮民)
들을 군적(軍籍)에 올려서 살갓을 도려내고 골수를 뽑아내며, 해
마다 전(錢)과 포(布)를 징수하여 군비를 보충하고, 황구침정이
나 백골징포로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그런데도 혹 호포(戶布)나

구전(口錢)을 시행하자는 의론을 내면 만인이 떠들어대며 상홍양(桑弘羊)의 법이라고 비난한다. 이는 모두 《상서》〈우공〉편의 구절을 잘못 해석한데서 비롯되었고, 《주례》와 《춘추》를 과거의 시험과목으로 쓰지 않기에 무지함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¹²

다산은 가능한 〈재산의 소유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이를 대상으로 과세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토지 이외의 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상서》〈우공〉편의 재해석을 통해 마련했다. 많은 이들이 과세의 혹독함을 비판하지만 이는 요순시대의 이상정치를 제대로 몰라서 하는 무지의 소치라고 일축했다. 다산의 고증학은 경전에 대한 단순한 고증이나 실증이 아니었다. 고증을 위한 고증이 아니라 현실의 개혁안을 준비하기 위한 밑그림이었다. 다산은 조선 후기에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는 현상이야말로 국가 몰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간주했다. 그는 노력한 만큼 가지는 대신 소유한 것에 대해 과세해야 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가의 모든 부를 ‘균분’하자는 주장이 아니었다. 부민들에게 공동체의 공생과 상생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것이었다.

한편, 조선 후기에 부의 편중 현상과 더불어 일부의 관직 독점은 더욱 문제였다. 많은 이들이 능력이 있음에도 걸맞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이들의 낙담과 한숨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실망한 이들이 천주교 등 서학에 몰두하여 전통적인 가치에서 멀어진

다는 정조의 지적과 같은 맥락이었다. 다산은 혈연이나 학연, 지연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자들을 널리 뽑아 등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임금에게 올린 우공의 충언이야말로 삼대의 이상정치를 가능하게 한 배경이었다.

저 바닷가 모퉁이에까지 퍼져 있는 많은 백성과 빼어난 수많은 백성들이 누군들 임금의 신하가 아니겠습니까? 어질고 준수한 인재를 널리 찾아 등용하는 것은 오직 임금의 생각대로 하실 뿐입니다. (중략) 만일 그러지 못하고 오직 이 귀족의 자제와 세족만을 장려하고 등용한다면 필시 편당을 지어 부화뇌동하며 날마다 거짓으로 공을 아릴 것입니다.¹³

한때 조선에도 융성한 시절이 있었다. 다산은 조선이 번성할 때 공경대신과 관각(館閣)의 신하들 가운데 먼 변경 지역의 출신들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18세기 후반의 현실은 어떠한가? 오직 관직에 오르는 사람은 서울 출신들 뿐이며, 이들은 그저 부화뇌동하며 거짓으로 공을 꾸밀 따름이었다.¹⁴

능력이 없는 이들이 관직에 오르고 그 업적의 대부분은 거짓이었다. 나라가 잘 다스려질 리 만무했다. 다산은 <홍범>의 구절을 해설하면서, 이른바 재능있고 일 잘하는 사람에게 관직을 주고, 열심히 일한 만큼 봉록을 주어야 나라가 번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능력이 있는데도 쓰이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응하는 보상이 없다면, 결국 아무도 열심히 일하려 들지 않을 터였다.

과연 관리들을 일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일한 만큼 상응하는 녹을 주어야 비로소 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열심히 일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임금에 주지 못해서 아랫사람들이 나라에 불만을 갖게 된다면, 결국 열심히 일하지 않을뿐더러 나라에 죄를 짓는 일까지 벌이게 될 것이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법을 어기거나 반역을 꾀한다는 것이 아니라 태만하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은유였다. 다산은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는 이들을 등용하여 녹봉을 준다면, 왕은 사람을 잘못 등용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비판했다.¹⁵

열심히 일한 자, 그 결과 공적이 많은 자는 당연히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더욱 힘을 내어 일할 것이다. 이것이 다산의 ‘공정한 보상’이요 ‘공평한 사회’였다.

3. 능력자 효과, <우공> 치수

요순시절의 이상적인 정치는 바로 능력자를 골라서 일을 시키고, 열심히 일한 만큼 대접한 데 있었다. 심지어 우는 치수 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왕위에까지 오르지 않았는가? 다산은 우의 노고와 업적을 칭송하고, 그를 진작에 알아 본 순임금의 혜안에 탄복했다. 우가 치수와 준설을 마치고 토지의 구획을 정리하자, 그 혜택은 모두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선정을 베풀고 싶은 왕은 ‘능력자’를 알아보는 능력[다산은 이를 지인(知人)이라 칭했다.]을 갖추어야 했다. 지

인의 효과가 곧바로 안민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인을 하려면 지도자 스스로 ‘수신(修身)’이 충실해야만 했다. 수신 이후에 비로소 치국평천하의 방도를 얻을 수 있다는 《대학》의 가르침은 그래서 필부(匹夫)의 학문이 아닌 지도자를 위한 핵심 화두였다.¹⁶

하수를 다스린 후에 우는 익(益) 직(穆)과 함께 회(滄)와 천(川)을 준설하는 일을 맡아서, 드디어 천하의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았다. 넓고 비옥한 땅은 모두 정(井)자 모양으로 구획하고, 주변의 땅들도 모두 방위를 분별하여 바르게 하고, 남북의 두령을 곧게 하고 남쪽과 동쪽으로 이랑을 낸 것이다. 《주례》의 체국경야(體國經野)가 이것이다.¹⁷

순임금은 능력자 우로 하여금 물을 다스리고 토지를 구획하여 이른바 인민을 위한 항산(恒産)의 기초를 닦도록 했다. 그리고 직접 우를 궁궐로 불러 본인의 업적을 고하도록 했다. 왕의 면전에서 거짓으로 자신의 공을 말할 수 없었던 우는, 그렇다고 자신의 치적을 자랑스럽게 떠벌릴 수도 없었다. 해당 장면을 상상하던 다산은 형님에게 《상서》를 읽다가 포복절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편지에 썼다.

참으로 포복절도할 곳이 하나 있으니, 참으려 하여도 웃음이 터져 나오는 곳은 바로 우임금이 자신의 공적을 말할 때의 광경입니다. 순임금이 ‘오너라 우야, 너도 창언하라.’고 하니 [창언이란

드러내어 말하는 것임. 자기의 공덕을 드러내어 말하고 싶어하지 않으므로 창언 하도록 유도했다.] 우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부지런히 일만 생각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우가 부끄럽고 어렵게 여겨 차마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겸양하면서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었습니까?’하고 단지 대강 말하여 ‘저는 부지런히 일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고요(阜陶)가 ‘글쎄 어떤 일에 부지런했던 말ियो?’라고 다그치니, [고요가 정색을 하고 엄하게 책망하기를 ‘고적하는 법은 지극히 엄숙한 것이요, 또 왕께서 지적에 계시는데 어찌 감히 이렇게 당황하며 머뭇거리리는 거요? 열심히 일했다고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조목조목 다 들어서 자세히 개진하시오.’라고 했다.]

우가 ‘홍수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질펀하여 산과 언덕을 집어삼켜 백성들이 온통 물속에 빠져 있어 저는 네 종류의 탈것을 타고 산을 따라가며 나무를 베고 또 익(益: 손의 신하)과 함께 모든 짐승의 날고기를 음식으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익의 이름을 중간에 삽입한 것은 공(功)을 나누어 가지려는 것이다.]

저는 구주(九州)의 강물을 티워 큰 바다로 물이 빠지게 하고 논과 밭의 물길을 깊이 파서 강으로 물이 빠지게 하였습니다. [두 번 자기를 호칭한 것은 모든 치수(治水)사업은 자신의 일이어서 남에게 양보하려 해도 하지 못함을 뜻한다.]

또 직(稷: 손의 신하)과 함께 곡식 종자를 파종하여 백성들에게 곡물과 날고기를 나누어 주었으며 넉넉하고 모자란 것들을 서로 무역하여 갖고있는 재화로 바꾸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백성들이 곡물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온 나라가 잘

다스려지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 없고 양보할래야 양보할 수 없고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공로를 속임없이 모두 진달했다.]

고요가 ' 좋습니다. [俞] 당신이 아뢰는 말을 모범답변으로 하겠습니다. [師汝昌言]'라고 했습니다. [유(俞)란 실지로 그랬음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사어창언(師汝昌言)이란 도리(道理)에 당연히 이와 같이 해야함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날 모임을 상상해 보면 참으로 한 폭의 생생한 그림이어서 순임금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고요·기우직이 죽 늘어앉아 고적하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상서로운 해와 구름이 역력히 눈에 띄어 오르니 정말로 절묘한 광경입니다.¹⁸

다산은 순임금이 우에게 직접 자신의 공적을 나열하라고 하니 자랑하는 것이 부끄러워 머뭇거리는 모습을 상상하며 웃음지었다. 치적이 많은 자는 자랑하고 싶어 할 텐데 우는 전연 그러하지 않았다. 여기서 일단 우의 겸손한 미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치적을 아뢰는 자리는 겸손할 필요가 없는 자리였다. 고요가 다그쳤다. 이에 우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 배고프지 않게 한 일, 치수 사업을 벌여 재난 상황으로부터 백성을 구한 일, 곡식을 심고 물건을 교환하여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보장한 일 등을 보고했다. 이 가운데 우는 자신의 업적을 다시 익과 직 등과의 공동 치적이라고 보고했다. 오직 치수만이 자신의 공적이라고 말한 것이다.

다산은 우의 고적 장면을 떠올리면서 “숨길래야 숨길 수 없

고 양보할래야 양보할 수 없고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공로를 모두 진달했다”고 칭송했다. 한마디로 우는 일머리와 함께 겸손의 덕성까지 모두 갖춘 ‘현능’의 상징이었다.

이처럼 ‘삼대의 이상정치’는 능력 있는 자에게 일을 맡기고 그 업적을 평가하여 상·벌을 가하는 공정한 능력주의에 달려 있었다.

4. 오래된 현실?

현능한 자가 적합한 자리에 있어야 그 혜택을 만백성이 받을 수 있었다. 만인은 각자의 능력과 소질이 달랐다. 이를 알아보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선구안이 필요했다.¹⁹ 문제는 조선 후기 현실이었다. 다산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사회는 어느 것 하나 문제가 아닌 데가 없었다. 특히 자신의 ‘노력과 업적에 따른 공정한 분배[自食其功]’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원래 생민에게는 욕망이 있지만 그 중 큰 욕망은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부(富)이고 둘째는 귀(貴)이다. 무릇 군자의 족속은 왕의 조정에서 벼슬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귀하게 되는 것이다. 소인의 족속은 왕의 들판에서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부유해지는 것이다. 관리의 임명에서 마땅함[宜]을 잃으면 원망과 비방이 귀족에서 일어나고,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 때 고르지(周) 않으면 원망과 비방이 소민에게서 일어나는데, 두 가지 모두 족히 나라를 잃게 할 수 있다. 국가의 치란과 흥망의 원인, 그리고 민심의 향배와 거취를 묵묵히 생각해 보면, 원인은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참으로 성인의 말은 모두 신중한 생각과 분명한 판단의 결과이다.²⁰

다산은 나라의 운명이 달린 두 가지가 있으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두 가지의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와 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이다. 부는 소인들이 좋아하고, 귀는 군자들이 추구한다. 특히 귀는 관직의 분배를 의미했다. 관직을 나누는 데 편당의 마음을 먹고 공평하지 않게 나누면 군자들이 원망하고, 부의 분배가 일부에게 집중되면 소인들이 울분한다. 역사의 치란(治亂)이 모두 여기에서 결정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맹자의 말을 인용한 다산은, 차라리 왕과 함께 이 나라가 망했으면 하고 백성들이 바라는 ‘순간’이 도래한다고 강조했다.

대개 터럭 하나만큼이라도 병통 아닌 것이 없는 바,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한 다음이라야 그칠 것이다. 이러하니 어찌 충신과 지사가 팔짱만 끼고 방관할 수 있을 것인가.²¹

다산은 ‘올바른 능력주의’를 주장했다. 올바른 능력주의는 태

생적인 사회적 지위와 자원의 세습을 반대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능력주의=귀족주의-특권 세습>이다.”²² 이미 조선은 ‘능력주의’의 관점에서 ‘근대’에 바짝 다가서 있었다. 특히 우리가 칭송해 마지않는 다산이야말로 능력주의를 맹신했다. 과연 ‘능력주의를 강조한 실학자’의 생각을 노골적인 신분제보다도 더 위험하고 악의적인 주장으로 비판하기는 쉽지 않다.²³ 오늘날 젊은 세대의 ‘공정한 보상’에 대한 욕구 역시 다산의 생각과 멀지 않다.²⁴ 그렇다면 우리는 능력주의야말로 공평하다는 이 ‘오래된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²⁵

2강 각주

- 1 김호, 2008 <조선후기 통신사와 한·일 의학 교류: 필담록(筆談錄)을 중심으로> <조선통신사연구>6
- 2 김호, 2020 <조선후기 유배인의 서간(書簡) 토론: 다산 정약용과 손암 정약전의 교류를 중심으로> <기전문화연구>41-2.
- 3 <여유당집>(서울대 규장각본), 권24, 書牘75.
- 4 한영우, 2013 <과거, 출세의 사다리> (지식산업사)
- 5 <다산시문집> 권20 <上仲氏>
- 6 다산이 <목민심서>에서 지방관의 고적을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이다.
- 7 다니엘 벨(김기협 역), 2017 <차이나 모델: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왜 유능한가> (서해문집)
- 8 <尙書古訓> 권7 <跋>
- 9 <여유당전서> <문집> 권11 <田論(3)>
- 10 <尙書古訓> 권2 <阜陶謨>
- 11 <尙書古訓> 권4 <盤庚(下)>
- 12 <尙書古訓> 권3 <禹貢>
- 13 <尙書古訓> 권2 <阜陶謨>
- 14 <尙書古訓> 권2 <阜陶謨>
- 15 <尙書古訓> 권4 <洪範>
- 16 <大學公議>1 <大學之道>; <尙書古訓> 권2 <阜陶謨>
- 17 <尙書古訓> 권3 <禹貢>
- 18 다산시문집> 권20 <上仲氏>
- 19 정조는 스스로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을 자처했는데 이는 권력의 핵심에서 통치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주장이 아니라, 인민들의 다제다기한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知人’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천명이었다(<홍재전서> 권10
- 20 <尙書古訓> 권2 <阜陶謨>
- 21 <경세유표>
<방례초본인(邦禮艸本引)>
- 22 이진우, 2022 <능력주의의 두얼굴> <우리안의 파시즘2.0> (휴머니트스) p.47
- 23 박권일, 2021 <한국의 능력주의> (이테아) p.15
- 24 신재용, 2021 <공정함 보상>, (홍문사)
- 25 ‘진보적인 유교’의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Stephen C. Angle, 2013, *Contemporary Confucian Political Philosophy*, Polity, pp.1-20)

3강

공정의 역습-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공정’

천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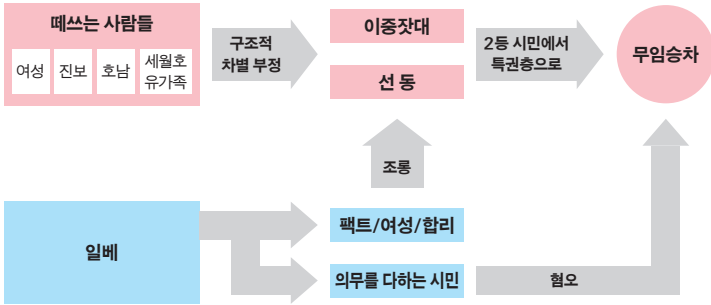
기자.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했다. 기자가 글 쓰는 직업이라고 잘못 알고 골랐다. 되고 보니 사람 만나는 직업이었다.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시사HN 기자로 일했다. 2021년부터 미디어 플랫폼 alookso에서 에디터로 일한다. 영상이 지배하는 시대에도 활자의 매력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다닌다. 멀쩡히 쓸 줄 아는 의사소통 도구가 그거 하나라, 예측보다는 염원에 가깝다.

상징적인 장면으로 시작하자. 2014년 9월6일 토요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단식농성장 앞에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들이 모여들었다. 이곳에서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을 조롱하는 ‘폭식투쟁’을 하고, ‘일베 인증’ 손동작(손가락으로 ‘ㅇㅂ’을 그린다)을 하며 애국가를 불렀다. 일베 회원들은 이날을 ‘906 광화문대첩’이라 부르며 자축했다. 이날의 ‘폭식투쟁’은 일베가 온라인을 넘어 한국 사회 이슈의 중심으로 올라선 계기가 됐다.

‘폭식투쟁’ 이전까지 한국 사회가 일베라는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은 이런 것이었다. 루저 문화, 인터넷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는 반사회적 하위문화, 소외된 청년들의 뒤틀린 공격성 등등. 그러나 이날 그들이 보여준 것은 루저 감수성이 아니었다. 그날의 정서는 분명 자부심과 흥분이었다. 일베 사이트는 광화문대첩의 무용담으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다. 대체 왜? 이 반사회성이 어떻게 자부심의 바탕이 될 수 있나?

김학준 씨는 그 해 8월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일베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은 연구자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일베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는 ‘루저’가 아니다. ‘무임승차 응징’이다. 다음 그림은 일베 이용자들이 공유하는 논리 체계를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한 축에는 일베의 ‘주적들’이 있다. 크게 보아 셋이다. 여성, 진보·개혁 진영, 그리고 호남이다. 한국 사회에서 소수파로 분류할 수 있는 이들이다.

일베가 보기에, 여성·진보·호남이 공유하는 특징은 ‘권리와



출처: <시사IN> “이제 국가 앞에 당당히 선 ‘일베의 청년들’”

의무의 불일치'다.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는 과도하게 요구한다. 여성은 데이트 비용을 내지 않고 남자를 등쳐먹고, 진보는 제 능력으로 성공하는 대신 국가에 떼를 쓰고, 호남은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뒤통수를 친다.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성공해온 역사에 기여한 바가 별로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베의 눈에 이들은 2등 시민이다.

국가 건설의 주역은 남성·산업화세력·영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었다. 즉, '기여한 만큼 받았다'. 그런데 여성·진보·호남이 비주류의 권리를 내세워, 기여한 것보다 더 큰 보상을 요구한다. 이들은 떼를 써서 과도한 보상을 받는 세력이다. 이것으로 2등 시민이 특권층으로 변신했다. 의무 없이 권리를 챙기는 '무임승차'다. 반면 병역과 납세 의무를 다하고 성실하게 체제의 요구를 따르는 1등 시민은 돌연 부당하게 권리를 빼앗긴 희생자가 되었다.

일베의 사고체계에서 자신들의 혐오와 조롱은 소수자 혐오가 아니라 무임승차 응징이다.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는 무임승차를 징벌한다는 ‘강력한 당위’를 공유한다. 이는 일베 이용자들이 사회의 지탄에도 아랑곳 않고 광화문광장에 나설 수 있는 동력이었다.

세월호 유가족은 일베가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 아니다. 이들이 가족을 잃는 과정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다. 하지만 일베는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도 전선 뒤집기를 시도한다. 그러려면 먼저 ‘특권’, 즉 과도한 보상이라 딱지 붙일 거리가 필요하다. 일베는 희생자 가족의 대학 특례입학과 보상금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했다. 이제 공격할 과녁인 ‘특권’이 생겼다. 유가족은 ‘교통사고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무임승차자’가 된다.

비교 대상으로 일베는 천안함 유가족을 불러낸다. 이들이야말로 ‘자격이 있는 희생자’이면서도 세월호 유가족보다 훨씬 적게 보상받은 피해자다. 군인 보상체계와 민간인 보상체계가 다르다는 사실만 무시하면(보통은 이런 중요한 차이를 무시하면 안 된다) ‘세월호 유가족의 무임승차’와 ‘천안함 유가족의 희생’이라는 스토리가 완성된다.

사람은 무임승차를 보면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화를 낸다. 팀별 과제에 기여는 하지 않고 학점은 똑같이 받겠다는 대학생, 유리 지갑 월급쟁이를 비웃는 고소득 전문직 탈세자, 자기 경조사는 약착같이 알리다가 남의 경조사는 외면하는 친구, 부하 직원의 기획안에 제 이름을 써서 올리는 상사를 떠올려 보라. 1976년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4년 후에 대통령이 되는 로널드 레이건은 유

명한 무임승차 스토리를 들고 나온다. 가짜 신원 수십 개를 만들어 복지 혜택을 싹쓸이해 캐딜락을 타고 다닌다는 한 흑인 여성을 레이건은 ‘복지 여왕’이라 야유했다. 훗날 복지 여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로 확인됐다. 레이건은 알궂게도 이 복지 여왕을 ‘흑인’ ‘여성’으로 설정해, 소수자에 무임승차 낙인을 찍는 일베 특유의 기술을 40여 년 전에 보여주었다.

1장에서 확인했듯이 무임승차를 단죄하려는 마음은 인간의 보편 정서다. 인간 본연의 도덕 감정과 정의감에 기반한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무임승차 징계는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다. 무임승차를 방치하면 공동체를 위해 협력하는 사람이 줄어들어 사회 구조가 위태로워진다(무임승차자 한두 명이 생기면 억울한 마음에 다들 손을 놓아버리는 팀별 과제를 떠올려 보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피해를 볼 때뿐만 아니라 별 상관없는 경우에도, 무임승차를 보면 분노를 느끼도록 진화했다. 무임승차 응징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분노’다.

일베에서 출발한 논의가 무임승차 코드를 거쳐서, 도덕·정의·공평이라는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던 키워드에 도착했다. 일베가 진정 위력을 발휘하는 장면은 “기여한 만큼 받아야 한다” “무임승차를 징계해야 사회가 유지된다”라는 보편적인 도덕 감정을 정확히 건드릴 때다.

‘오늘날 청년 세대의 공정 감각’을 다루는 이야기가 왜 일베에서 출

발했는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주장을 먼저 명확히 하자. 우리는 “일베 문화가 청년들에게 침투해서 오늘날 청년들의 공정 감각이 왜곡됐다”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일베를 만악의 근원으로 간주하는 이런 설명은 편리하기는 하지만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지 않으며, 오히려 일베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한다.

핵심은 이것이다. 무임승차를 징벌하려는 우리의 마음은 강력한 도덕 감정이다. 일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일베가 그 반사회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문화의 대세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토양이 중요하다. 기여한 만큼 받아가야 한다는 원리, 기여한 게 적은 데도 더 많이 받아가는 무임승차자는 단죄해야 한다는 요구, 오늘날 청년 세대가 보여주는 공정 감각은 여기에 뿌리를 뒀다. 일베는 단절된 예외라기보다는 그 연속선 위의 극단이다.

문제인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지금도 ‘인국공’이라는 약어로 회자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시작이었다. 입사 시험이라는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정규직화는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문제인 정부 5년 내내 ‘불공정’ 딱지를 떼지 못했다.

국내 최대 공기기업인 한국전력 본사는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있다. 문제인 정부는 지방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 인재를 30% 이상 뽑도록 하는 지역할당제를 도입했다. 공채 성적이 낮은데도 지역할당제 덕분에 광주·전남 지역 지원자가 한국전력에 합격한다면? 마찬가지다. ‘자격 없는 사람들의 무임

승차'이므로 불공정하다.

여기에 '불공정' 목소리를 낸 청년들이 모두 일베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하지만 '불공정'의 논리 구조는 우리가 일베의 사고체계에서 확인한 바로 그 구조다. 비정규직/지방대생이라는 '비주류'가, 시험이라는 '공정한 절차'를 우회해서 좋은 일자리라는 '특권'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건 무임승차다. 문재인 정부는 무임승차를 조장하는 정부다.

이 공정 감각에 따르면, 정부는 경쟁의 과정에서는 무임승차자를 처벌하는 심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쟁의 결과가 나온 후에는 사후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경쟁이란 공채와 같은 시험일 수도 있고, 시장 경쟁일 수도 있다. 일반 원칙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그 누구도 특별대우를 하지 않는 공정한 규칙이 있을 것. 모두에게 경쟁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될 것. 그렇게 나온 경쟁의 결과대로 보상이 돌아갈 것." 이것을 '공정의 원칙'이라고 부르자.

'공정의 원칙'은 간결하면서 보편적(이 단어가 특히 중요하다)이다. 그래서 힘이 있다. 그리고,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경쟁 바깥 환경의 불균형 문제'가 있을 때, 이 원칙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한국전력 입사에서 지역할당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 때문이다. 여성정책이 있는 이유는 성별 불균형 문제 때문이다. 이러면 '그 누구도 특별대우를 하지 않는 공정한 규칙'은 실제로는 바깥 환경의 불균형에서 유리한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는 불공정한 규칙이 된다. 즉, 수도권 대졸자와 남성에게

게 유리한 불공정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정의 원칙’을 지키려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둘이다. 첫째, ‘경쟁 바깥 환경의 불균형 문제’를 인식하고 그 구조적 불리함을 보정해 주는 길이 있다. 이러면 ‘공정의 원칙’은 더 이상 간결하지도 보편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구체적인 타인’의 사정과 맥락을 살피는 문제가 된다. 둘째, ‘경쟁 바깥 환경의 불균형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길이 있다. 이것으로 ‘공정의 원칙’은 간결하고 보편적인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가장 첨예한 이슈인 젠더 문제를 보자. 청년 남성들의 눈에는 여성도 ‘때를 써서 특권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된다. 청년 남성들은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가 성차별 구조의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이 관점에서 남녀 임금격차의 원인은 여성들의 ‘선택’이다. 여성들이 더 공부하기 쉬운 문과 전공을 ‘선택’했고, 돈을 많이 주는 위험한 직업을 덜 ‘선택’했고, 노동시장에 머물기보다 육아에 시간을 더 투자하기로 ‘선택’한 결과다. 따라서 경쟁 바깥 환경의 불균형 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 국면에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는 바로 이 공정 감각에 응답하고 있었다.

구조적 차별의 피해자는 도움받을 자격이 있다. 고로 무임승차자가 아니다. 이 사람들을 무임승차자로 간주하려면, 구조적 차별을 부인해야 한다. 이들이 뒤쳐지는 이유는 구조적 차별이 아니라 개인이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아서라고 할 때(“임금격차는 성차별이

아니라 여성들이 선택한 결과다”) 무임승차자 징벌 논리가 성립한다(“그러므로 여성 취업 우대 정책은 폐지해야 한다”). 사회심리학은 이런 걸 ‘귀인’이라고 부른다. 원인이 내부와 외부 중 어디로 귀착되느냐를 따진다는 의미다.

사람들은 대체로 남의 행동을 설명할 때 외부 환경 요인을 과소평가하고, 그 사람의 내재적 특성 때문이라고 과하게 믿는 경향이 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기본 귀인 오류’로 알려져 있다. 사회역학자 리처드 월킨슨은 <불평등 트라우마>에서 이렇게 썼다. “환경의 힘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고 멍청해서 가난하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대표적인 기본 귀인 오류다. 이것이 바로 ‘편견’의 정의다.” ‘공정의 원칙’은 본질상 이 ‘기본 귀인 오류’에 기반한다. ‘공정의 원칙’은 경쟁의 규칙이 누구도 특별대우를 하지 않는 한, 경쟁의 결과물은 자기 책임으로 귀속된다는 선언이다.

그렇다면 이런 공정 감각은 왜 우리 시대에 두드러지는 것일까. 루이지노 브루니는 이탈리아의 경제사상가다. 그는 근대성의 핵심 특징을 ‘면역화 프로젝트’라고 불렀다(<콤포니타스 이코노미>). 여기서 면역이란 ‘관계로부터의 면역’을 뜻한다. 이 논의는 복잡하지만 우리 주제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소개해 본다.

아리스토텔레스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전적 전통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역설이 있다. “좋은 삶’은 시민적이다. 따라서 취약하다.” ‘좋은 삶’은 사회적 관계, 우정, 상호성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좋은 삶’이라는 축복은 본질상 타인에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본질상 취약하다. 그리고 이 취약함을 감당하지 않으면, ‘좋은 삶’을 얻을 수 없다.

브루니는 근대성이 바로 이 ‘취약함’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프로젝트(면역화 프로젝트)였다고 본다. 애덤 스미스의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 비유는 우리가 타인의 호의에 기대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선언한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이기심이 시장이라는 보편 원리를 작동시키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면역’된다. 정치철학에서도 비슷한 ‘면역화’가 일어난다. 존 롤스는 ‘서로에게 무관심한 시민’들이 보편적 원리에 따라 사회계약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려 보였다.

브루니는 이렇게 쓴다. “넓고 다원적이고 자유로운 사회가 ‘공정’하려면 개인들은 유대관계로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나와 너의 차이는 ‘차이를 없애는 것’으로 해결된다. 너와 나의 차이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계약(정치철학)과 사적 계약(시장)을 맺는다. 서로의 관계는 사라지고, 계약은 우리를 상호 면역 상태로, 즉 관계성이 소거된 상태로 만들어 준다. 공통의 기반, 관계가 맺어지는 곳은 갈등과 충돌, 죽음의 장소이기도 하다(‘취약함’). 근대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통의 기반이 주는 삶의 결실도 포기했다.”

브루니는 이렇게 본다. ‘좋은 삶’에는 타인이 묻어 들어올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취약함’을 받아들여야만 ‘좋은 삶’에 도달할 수 있다. 근대성이란 구체적인 타인을 추상적인 보편 원리로 바꿔서 이 ‘취약함’을 제거하려 했던 프로젝트였다. 그것으로 ‘좋은 삶’을

함께 제거해버렸다. 이제 이 렌즈를 들고 우리의 주제로 돌아가 ‘공정의 원칙’을 다시 읽어보자.

“그 누구도 특별대우를 하지 않는 공정한 규칙이 있을 것. 모두에게 경쟁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될 것. 그렇게 나온 경쟁의 결과대로 보상이 돌아갈 것.” 이것은 구체적인 타인을 추상적인 보편 원리로 대체하는 시도다. 상황과 맥락의 구체성을 보편 원리로 대체할 때, 우리의 삶은 단단한 원칙 위에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추상적인 보편 원리는 우리에게 일관성이라는 선물을 준다. 그러나 그 대가로 제거해 버리는 ‘구체적인 타인’이야말로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문제다.

‘공정의 원칙’이 특히 청년세대에게 두드러진다는 우리의 관찰에 대해, 따라서 브루니라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을 것이다. “공정의 원칙은 근대성에 내재한 ‘면역화 프로젝트’다. 한국의 청년세대가 유난히 공정에 민감하다면, 그것은 그 세대의 도덕적 결함이나 문제라기보다는 근대성이 갈수록 승리를 거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학자인 임동균 교수(서울대)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에서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공정성과 약자 보호다. 그런데 이게 공정성을 기성세대보다 더 강조한다기보다는 그저 말고 나머지 사회 규범들, 암묵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던 규범들이 줄줄이 해체되어서 그렇다. 공정성의 나머지 가치 잣대가 전부 흩어지는 바람에 공정성 잣대 하나

가 증폭된다.” 공정은 근대성이 승리를 거둔 자리에 살아남는 규범의 잣대다.

일베는 공정 감각의 예외가 아니라 한 극단이었다. 마찬가지로, 공정 감각 또한 예외가 아니라 극단이다. 이 공정 감각은 근대성의 승리를 밀어붙일수록 순수한 형태로 정제되어 우리 눈에 더 잘 뜨이게 되었을 뿐, 우리 시대 청년들의 새로운 발명품이 아니다.

타인이 주는 ‘취약함’으로부터 ‘면역’을 얻겠다는 태도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2019년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 때 홍콩 공항에서 발이 묶인 일본인 관광객이 TV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인터넷에서 회자된 적이 있다. 인터뷰 내용을 한국어로 옮기면 이렇다.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이 인터뷰가 왜 불쾌한지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실제로 이 인터뷰는 당시 홍콩인들의 시위를 지지하는 한국 네티즌들로부터 조롱 대상이 됐다. 하지만 우리는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요구하며 지하철을 멈춰 세울 때, 저 일본인 관광객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 “장애인 이동권에 찬성하지만 그들이 나의 출근을 방해할 권리는 없다.” 이런 주장은 공론장에서 ‘진지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진다. 둘은 얼마나 다른가?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두 가지를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첫째, 이런 공정 감각은 남녀 모두에게서 발견되지만, 분명 남성들에게서 더 두드러진다. 여성들은 성별이라는 조건 때문에 ‘구조적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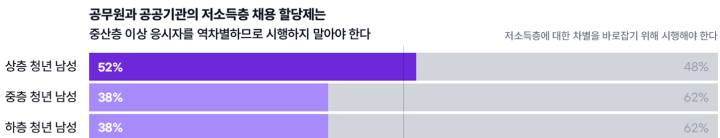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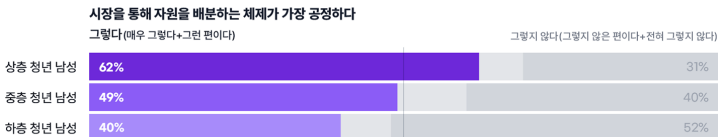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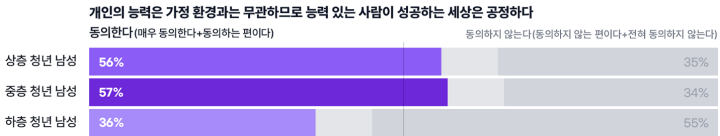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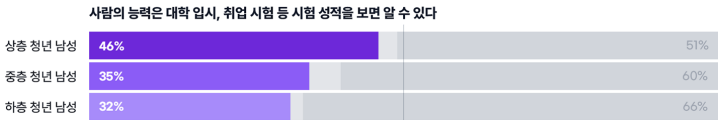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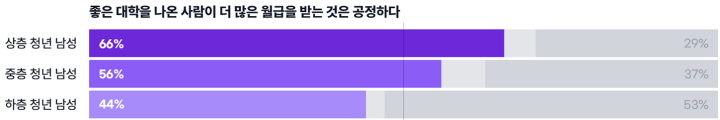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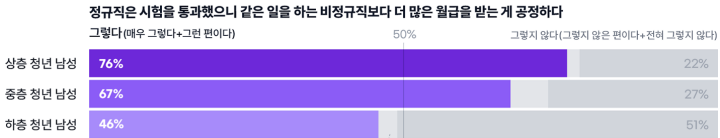
문제를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므로, ‘공정의 원칙’에 대해 남성들만큼 확신에 차 있지는 않다.

둘째, ‘공정의 원칙’이 청년 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원칙에 열광하는 정도는 계층적 차이가 뚜렷하게 난다. 이어지는 다음 그림은 미디어 플랫폼 alookso에서 지난해 6월 실시한 조사 결과다. ‘공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문장을 주고 동의 여부를 물은 결과, 하층 청년으로 갈수록 시큰둥한 태도를 보인다.

두 예외는 ‘공정의 원칙’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 보여주는 힌트다. 젠더나 계층에서 ‘경쟁 바깥 환경의 불균형 문제’를 삶의 경험으로 체감할수록, ‘공정의 원칙’은 인기가 없어진다. ‘공정의 원칙’은 경쟁 바깥 환경이 무균실이어야 지켜질 수 있는데, 하층 청년과 여성은 바로 이 대목에서 다른 경험에 노출된다.

'이대남 현상' 상층이 주도, 하층은 시큰둥

학벌·능력과 임금차이에 대한 의견, 청년 계층별 응답 비율
18~34세 남성 516명 응답



조사 기관: alookso, KBS 시사기획 창, 한국리서치, 조사 기간: 2021. 6.24~28
alookso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4강

공정과 불평등

송지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리뷰오브북스』 편집위원. 정치철학, 법철학, 인권학의 교집합에 있는 문제들을 주로 연구하며 T.M. 스캔런의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를 번역 중이다.

물질적 재화를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상태를 '완전 평등'이라고 하자. 완전 평등을 노리는 게 적절한 상황이 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완전 평등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더, 누군가에게는 덜 주는 불평등의 상태가 정당한 듯 보인다.

언제, 왜 이러한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답은 '불평등이 공정한 경우'일지 모른다. 가령 공정한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거나 더 좋은 기회를 누리는 것은 공정하고 그러므로 정당한 불평등이라는 식의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맞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경쟁이 공정한지 알아야 한다. 현대 정치철학에서 어느 정도 자원을 얻을 수 있다.

'불평등의 세 단계 정당화'(three-level justification for inequality) 체계를 제시한 철학자 T.M. 스캔런(T.M. Scanlon)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겪는 어떠한 불평등에 이의제기를 할 때, 그가 겪는 불평등이 정당화된다는 점을 보이려면 다음 세 단계의 정당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제도적 정당화:** 해당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제도의 존재가 정당하다.
2. **절차적 공정성:** 다른 사람들은 이득을 얻고 이의제기자는 그러지 못하게 된 과정이 절차적으로 공정했다.
3. **실질적 기회:** 이의제기자가 이 과정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과정에서 더 잘하지 못한 데에 부당함이 없었다.

이를 선발과정에 적용하면 희망자 가운데 일부만 선발하는 제도가 먼저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실제 선발 과정이 절차적 공정성을 지켰는지 알아봐야 한다. 이때 절차적 공정성은 제도적 정당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도의 존재 근거와 무관한 요건이 선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절차적으로 불공정하다.

적절한 제도적 정당화에 기반하여 절차적 공정성이 지켜졌더라도 선발 경쟁에 제대로 참여할 실질적 기회가 없었다면, 그 상황은 공정하지 않다. 실질적 기회 보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꽤 까다로운 문제이다. 대표적인 실질적 기회 보장 원칙인 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의 ‘공정한 기회균등(fair equality of opportunity) 원칙’에 따르면 재능과 의욕이 같다면 가정 형편이 어떻든 같은 교육 기회와 경제적 기회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게다가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만으로도 실질적 기회를 보장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애초에 어떤 일에 대한 재능이나 그에 도전하려는 의욕조차 가정 형편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교육, 문화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므로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을 제대로 적용할 조건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처럼 실질적 기회 보장을 판단하는 데에는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세 단계 정당화 체계를 검토하다 보면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의미의 공정은 넓은 의미의 공정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공정을 가장 넓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고민한 현대 철학자인 롤스는 《정의론》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라는 정의관을 제시한다. 사회를 하나의 협동체, 즉 각자 저마다의 가치관과 이해관심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섞여 살면서 각종 이득과 부담을 만들어내는 체계로 본 롤스에게 공정은 사회협동 자체의 이득과 부담을 나누는 방식이다. 롤스는 정의로운 협동체만이 구성원의 자발적인 지지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의로운 사회가 공정한 사회협동체라면, 부정의한 사회에서는 공정한 몫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롤스주의 철학자 토미 셸비(Tommie Shelby)는 이런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정의(tolerable injustice)의 기준을 제시한다. 정의로운 사회가 공정한 사회협동체라면, 부정의한 사회에서는 공정한 몫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정의는 이들이 그럼에도 협동체의 규칙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여전히 시민적 책무를 다하면서 제도 안에서 제도 개선을 시도해야 마땅한 범주, 즉 시민적 참을성의 임계점을 규정한다. 그 임계점은 적어도 세 가지만은 지켜지는 지점이다. 우선, 모두의 시민·정치권이 평등하게 보호받아서 시민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된다. 둘째로, 모두가 생계를 위한 최저 수준의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다. 끝으로, 비록 공정한 기회균등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모두가 자기계발과 물질적 안정을 성취할 충분한 기회

는 제공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불평등과 공정은 서로 맞물리고 이어지는 관계이다. 넓은 의미의 공정은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지만, 폭넓게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려면 여러 방향으로 불평등을 제한해야 한다. 극심한 불평등은 공정한 사회 협동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사회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위태로운 처지에 놓인다. 이런 상황에서 불평등은 많은 경우 공정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제도가 기본적인 공정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이다.

불평등의 제한이 공정 유지를 위해 필요하기도 하다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좀 더 일반적인 교훈도 얻을 수 있다. 불평등이 언제, 왜 나쁜가에 대한 교훈이다. 사람들은 때로 불평등은 그 자체로 나쁘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더 많이 가지고, 누군가는 적게 가지는 상황은 그 자체로 나쁘고 그래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방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앞서 세 단계 정당화 체계를 논의하며 예로 보았듯이,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제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많은 경우 불평등은 그 자체로 나쁘다기보다는, 우리가 피해야 할 다른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나쁘다. 불평등을 제한할 이유는 이런 안 좋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앞서 보았듯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한 사회에서는 공정한 기회균등과

같은 실질적 기회 확보의 원칙을 실현하기 어렵다. 스캔런은 이와 함께 부의 불평등이 심한 상황에서는 부유한 이들이 정치 과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치적 공정성이 무너지고 법과 정책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한 협동체로서의 사회는 모두의 자유를 실현해야 한다 면, 이러한 자유 실현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심각한 물질적 불평등은 제어해야 할 이유가 생긴다. 생계를 위해 타인의 강압과 지배를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이나, 더 나은 처지를 희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협동체에서 당신의 몫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민적 참을성의 임계점을 시험하는 일이다. 그 사회에서 보이는 불평등의 종류와 정도는 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부정의, 즉 참아낼 만한 수준의 불공정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5강

공정함을 원하는 뇌, 그리고 행동

김학진

심리학자. fMRI(기능적 자기공명영상 기법)를 사용해 인간의 경제적·사회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뇌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 '도덕적 판단'과 '이타적 행동'의 신경학적 기제를 밝히는 연구들을 진행해왔다. 이 연구의 핵심에 '공정함'에 대한 물음이 놓여있다. 지은 책으로 『이타주의자의 은밀한 뇌구조』가 있다.

우리는 누구나 공정한 사회를 꿈꾸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찬사를 받게 된다. 또한, 공정함을 합리성과 같은 의미로 보는 상식적인 견해도 우세하다. 그러나 공정성을 향한 인류의 열망은 과연 합리성만을 추구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공정성에 대한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연구들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뇌과학적 연구는 그리 역사가 길지 않다. 하지만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뇌과학적 연구들이 드러내는 공정성의 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식들과 배치되는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최신 뇌과학적 연구결과들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함을 원하는 심리의 생물학적 기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아마 혹자는 공정성이라는 범인류적인 질문에 한낱 개인의 뇌를 들여다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어쩌면 불공정에 분노하는 한 개인의 심리과정을 생물학적으로 분석해서 이해하는 것은 공정성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줄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먼저 공정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는 어디서 기원하며, 이 욕구는 어떻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행위들로 이어지고, 이러한 행위들은 어떻게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공정성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최신 뇌과학적 근거들을 토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트라이앵글

몇 년 전 <트라이앵글>이라는 흥미로운 퀴즈쇼가 방송된 적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구현된 게임 상황은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하지만 출연자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잔인하다. 이 퀴즈쇼에는 매회 세 명의 참가자들이 출연한다. 이들은 서로 협력하여 다양한 난이도의 퀴즈들을 함께 풀어내며, 한 문제씩 정답을 맞힐 때마다 난이도에 상응하는 상금을 얻는다.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참가자들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협력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급격하게 동료 의식을 느끼며 친밀감을 형성한다. 이들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노력하면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상금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각 참가자의 상대적인 공헌도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퀴즈쇼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모든 게임이 끝난 뒤 시작된다.

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 참가자들은 그동안 축적된 상금을 서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 상금을 사이좋게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면 해피엔딩이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은 주어지지 않는다. 가학적 취미를 가진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서는 한 가지 규칙을 제시한다. 참가자들은 각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총 상금을 6:3:1 혹은 7:2:1의 비율로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분배 비율은 의도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도록 설정되었고 참가자들은 누가 어떤 비율로 상금을 받아갈지 서로 합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때 주어진 시간은 단 100초뿐이다.

참가자들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와중에도 상금은 매 초마다 계속 줄어들고, 100초가 지나도록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결국 상금 전액이 사라진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합의를 도출해야지만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상금의 크기가 커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각자가 자신의 기여도를 모두 다르게 느낀다는 것이다. 당연히 합의를 시도하는 동안 참가자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말투는 거칠어지며 점차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다.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1의 비율을 받으라는 다른 참가자들의 다소 강압적인 요구에 한 여성 참가자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그사이 100초라는 시간이 모두 소진되어버리고 말았다. 결국 참가자 세 명 모두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퇴장하는 쓸쓸한 광경이 펼쳐졌다.

아마도 누군가는 이 퀴즈쇼가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진 흥미 위주의 지속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 이 퀴즈쇼는 ‘최후통첩 게임(ultimatum game)’이라는 유명한 경제학 실험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들어졌으며 공정성에 민감한 인간의 심리를 정교하게 파헤치는 게임이라 말할 수 있다.

2. 불공정에 반응하는 뇌

최후통첩 게임은 공정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이 고안해 낸 단순화된 사회적 게임이다. 최후통첩 게임에는 ‘제안자’와 ‘응답자’ 역할을 맡는 참가

자 두 명이 참여하는데, 이 게임이 시작되면 실험자는 먼저 일정한 금액의 돈을 제안자에게 건네준다. 돈을 받은 제안자는 받은 돈의 일부를 응답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지만 금액은 제안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응답자가 제안자로부터 제안받은 금액을 그대로 수락하게 되면 두 사람은 제안자가 제시한 대로 돈을 나누어 갖게 되고 게임은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응답자가 생각하기에 제안액수가 불공평하게 적은 경우 이를 거절할 수도 있다. 응답자가 제안을 거절하면 제안자와 응답자는 모두 한 푼도 못 받고 게임이 끝난다. 따라서 응답자의 거절을 피하기 위해서 제안자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를 제안하기보다 좀 더 신중하게 액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인간을 가정하는 고전경제학의 예측에 따르면 모든 제안은 0이 아닌 이상 수락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실제 이 게임을 통해 얻은 결과들을 살펴보면 제안액이 총 금액의 20퍼센트 미만일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실제 제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거절을 선택한다는 것이 밝혀졌다(Andersen, Ertac, Gneezy, Hoffman, & List, 2011).

최후통첩 게임에서 응답자들이 불공정한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다. 이러한 응답자의 거절 행동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고, 이 또한 미래에 얻게 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는 해석도 있었다. 그 이유는 거절이 치밀한 계산에 의한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인 충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을 어느 정도 가라앉히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fMRI를 사용한 뇌 영상 연구였다. 불공정한 제안을 받는 응답자의 뇌에서 감정과 깊이 관련된 뇌부위가 활성화된다는 최초의 뇌영상 연구 결과가 보고된 후 불공정한 제안을 거절하는 주요 동기는 불쾌한 감정적 반응 때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Sanfey, Rilling, Aronson, Nystrom, & Cohen, 2003).

2003년에 행해진 이 뇌 영상 연구에서는 최후통첩 게임을 사용하여 응답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참가자들의 뇌 반응을 관찰했다. 이 실험에서 참가자는 fMRI 장비 안에 누운 채 눈 위에 부착된 거울에 비친 컴퓨터 화면을 통해 여러 제안자들과 최후통첩 게임을 실시했다. 게임이 시작되자 제안자의 얼굴과 이름이 먼저 제시되었다. 잠시 후 제안자가 10달러 중 8달러를 자신이 갖고 참가자에게는 2달러를 제시한다는 글이 화면에 나타났다. 바로 이때, 즉 제안자로부터 불공정한 금액을 받는 순간에 참가자의 뇌에서 뇌섬엽이라 불리는 부위의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뇌섬엽은 제안자의 제안 금액이 9:1 정도의 비율로 불공정했을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반응을 나타냈고, 8:2 정도의 불공정한 제안에 대해서는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제안 금액이 5:5의 비율로 공평하게 주어질 경우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또한, 불공정한 금액에 대해서 뇌섬엽의 반응 수준이 높았던 응답자는 제안을 거절할 확률도 높았다.

3. 뇌섬엽의 기능

단지 뇌섬엽이 불공정한 제안에 반응하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는 불공정한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뇌섬엽은 왜 불공정한 제안에 대해 반응하는 걸까? 뇌섬엽은 우리가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대는 것처럼 통증을 유발하는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그 전기 신호를 받는 첫 번째 대뇌 피질 영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불쾌한 냄새나 맛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뇌 영역으로 손꼽힌다(Craig, 2002). 이렇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자극뿐만 아니라 사고로 끔찍하게 훼손된 시신의 사진이나 더러운 장면 등과 같이 좀 더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의 시각적 자극에 대해서도 뇌섬엽은 반응한다. 대표적인 예로 타인이 역겨워하는 표정을 볼 때를 들 수 있으며 이 부위가 손상되면 타인의 역겨운 표정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뇌섬엽은 흥미롭게도 우리 몸의 장기들로부터 오는 내부 감각 신호들이 가장 많이 통합되는 대표적인 뇌 영역이다. 그래서 흔히 '내장 피질(visceral cortex)'이라고도 불린다(Critchley & Harrison, 2013). 감각 신호라고 하면 흔히 시각, 청각, 촉각 등만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우리 뇌가 전달받는 감각 신호는 이러한 감각 정보뿐만 아니라 몸의 내부에서 오는 신호 역시 포함한다. 즉 심장, 폐 등과 같이 여러 장기에서 보내는 신호들이 끊임없이 뇌로 전달되는 것이다. 그리고 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장기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절하는 신호를 다시 장기들로 전달한다.

뇌섬엽의 내부 감각 정보 처리 기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하나 살펴보자. 실험에서는 먼저 특수 장비를 사용해 참가자들의 심장 박동수를 특정 리듬을 가진 음으로 변환하였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헤드폰을 통해 들리는 특정 음들의 리듬이 자신의 심장 박동수와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의식적으로 내부 감각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을 검사하는 테스트인 셈이다.

실험 결과, 참가자들 간에 큰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현재 자신이 듣고 있는 리듬이 자신의 심장 박동수와 같은지 아닌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구분해낸 것이다. 이들에게는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일까?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사람들의 뇌 반응을 fMRI를 통해 측정해 보았는데, 그 결과 자신의 심장 박동수를 상대적으로 정확히 감지해 내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뇌섬엽의 활동이 더 높았고 이 부위의 크기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Critchley, Wiens, Rotshtein, Ohman, & Dolan, 2004).

우리는 내부 장기들로부터 오는 비교적 일정한 신호에 거의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호에 매우 익숙해진다. 즉 이러한 신호를 의식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하지만 체내 항상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배고픔이나 통증이 뇌로 전달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내부 장기들로부터 오는 신호는 뇌로 전달됨으로써 음식을 찾거나 통증을 피하는 등의 행

동을 촉발한다. 이렇게 신체 내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뇌 섬유는 이를 감지해 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4.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

감정에 관한 새로운 이론에 따르면, 우리 뇌는 신체로부터 오는 모든 내부 감각 신호를 끊임없이 감시 또는 예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측이 어긋나는 순간, 감정을 경험한다(Barrett, 2017; Seth, 2013). 즉, 뇌가 내부 감각 신호들을 완벽하게 예측할 경우에는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하며, 감정을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 뇌가 내부 감각 신호를 예측하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예측이 실패했음을 감지하여 추가 정보를 수집하거나 혹은 예측을 수정해 예측력을 높이려는 것이 감정의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내부 감각 신호에 대한 예측력이 높아지면 어떤 이로움이 있을까?

우리의 신체는 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강한 동력을 지닌다. 항상성 유지가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항상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신속하게 알리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을 촉발하는 신경 회로는 생존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내부 감각 신호에 대한 높은 예측력이 지니는 가장 큰 장점은 체내 항상성이 붕괴되기 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최대한 빨리 예측하고 이

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책략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발달해왔다.

다양한 종류의 내부 감각 신호들을 통합하는 뇌섬엽은 감정 경험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뇌 영역 중 하나다. 어쩌면 뇌섬엽은 신체 다양한 부위의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일종의 상황판에 비유할 수 있다. 신체의 어느 부분에서 현재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 상황판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상황판을 통해 문제를 파악했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뇌섬엽은 전전두피질과 구조적으로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결을 통해 두 부위는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한다. 앞서 소개한 최후 통첩 게임 뇌영상 연구에서 불공정한 제안에 대해 반응한 뇌부위들 중에는 뇌섬엽뿐 아니라 배외측 전전두피질도 포함되어 있었다. 흥미롭게도 경두개 자기자극법(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TMS)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이 부위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을 때 사람들은 불공정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Knoch, Pascual-Leone, Meyer, Treyer, & Fehr, 2006). 사실 누군가로부터 공정한 제안을 받는 것은 가치들 간의 충돌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직관적 가치판단만으로 충분히 반응할 수 있다. 하지만 불공정한 제안을 받게 되면 여러 가치들 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작은 금액이라도 받고 제안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당했고 나의 자존감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이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욕

구도 존재한다. 이 두 욕구들 간의 충돌이 발생하면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더 많은 정보들을 고려하는 분석적 가치판단기제가 활성화된다. 예를 들어, 불공정한 제안을 받는 순간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제안을 했지? 나를 무시한건가? 내가 거절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등의 생각이 빠르게 머릿속에서 처리될 수 있다. 불공정한 제안에 대해 반응하는 뇌섬엽은 이처럼 가치들 간의 충돌을 감지하여 좀 더 분석적 정보처리를 담당하는 배외측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안자의 불공정한 제안을 거절하는 행동은 뇌섬엽이 예측한 불균형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일 수 있다. 상대방의 부당함을 목격할 때 자신도 모르게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이 감정 반응은, 이로 인해 예상되는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감지한 뇌섬엽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전두엽에 알리는 일종의 알람 신호로 볼 수 있다.

5. 공정함에 반응하는 뇌

불공정이 불균형을 유발한다면 공정은 균형을 유지하는데 유용한 신호일 수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는 어떤 뇌 부위가 반응할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 연구에서는 다시 한번 최후통첩 게임을 사용한 뇌영상 연구를 진행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일반적인 최후통첩 게임에서 공정한 분

배는 불공정한 분배보다 더 높은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불공정한 분배보다 공정한 분배에서 더 높은 반응을 보인 뇌 부위가 단순히 높은 금전적 보상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공정성’이라는 추상적인 가치에 대한 반응이라고 어떻게 결론내릴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금전적 보상의 크기와 공정성을 구분해낼 수 있는 실험 디자인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제안자가 2만원 중에 5천원을 돌려주는 상황과 5천원 중에 3천원을 돌려주는 상황을 비교해 보자. 앞의 상황이 뒤의 상황보다 금전적 보상의 측면에서는 더 높지만 공정성의 측면에서는 더 낮다고 말할 수 있다. 뇌영상 실험 결과, 예상대로 실제로 제안자가 분배해준 금액의 액수가 높건 낮건 이와 상관없이 공정한 제안을 받는 순간 복내측 전전두피질이라는 뇌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이 관찰되었다(Tabibnia, Satpute, & Lieberman, 2008).

6. 신경학적 공동통화

복내측 전전두피질의 가장 잘 알려진 기능은 바로 가치 계산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보상을 서로 비교하고 선택한다. 돈을 얻기 위해 시간을 포기하기도 하고, 원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 돈을 낸다.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 다른 보상들을 짧은 시간에 정확히 비교하여 선택을 내리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해왔던 경제학자들은 ‘공동화폐’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다시 말해, 모든 보상은 먼

저 공동화폐로 환산되고, 이 환산된 값으로 보상 간의 비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고민이 해결되었을까? 물론 아니다. 이 공동화폐가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증명해야만 했다. 새로운 고민이 커지는 중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음식, 돈, 자동차, 집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보상에 공통적으로 반응하는 부위로 복내측 전전두피질이 발견된 것이다(Kim, Shimojo, & O'Doherty, 2011). 이 부위는 영장류, 특히 인간에게서 잘 발달했고, 감정조절과 선택의 가치계산 등의 기능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다양한 보상들에 공통적으로 반응하는 이 부위는 경제학자들이 오랫동안 찾아온 공동화폐의 개념과 잘 들어맞는다. 이를 통해 우리는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어떤 보상이 나의 생존과 번식에 얼마나 유리한지를 계산하고, 다양한 보상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전적 보상과 무관하게 공정한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이 복내측 전전두피질이라는 공동화폐를 활성화시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혹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통해 우리가 공정성을 추구하는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전에 먼저 보상이란 과연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7. 보상의 뇌과학적 정의:

신체 항상성 불균형의 해소

생명은 엔트로피의 증가라는 자연스러운 물리학적 원리를 거스르

는 특이한 상태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체내에 수분이 줄어들면 이를 다시 보충하기 위해 물을 섭취하고, 체온이 떨어지면 다시 높이기 위해 따뜻한 곳을 찾아 이동하게 된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처럼 수많은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경험하면서 접근이나 회피 등을 통해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어떤 경우는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어떤 경우는 실패하기도 하는데 성공의 경험은 행동을 더 강화시키고, 실패의 경험은 새로운 행동을 탐색하도록 만든다. 모든 성공과 회피의 경험들은 사라지지 않고 뇌 속에 차곡차곡 쌓여 반복을 통해 피드백이 자동화된다. 이렇게 자동화된 경험치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되며,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나의 행동을 지배하는 강력한 습관이나 편견으로 굳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다가올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성공적으로 방지해주는 자극들에 대해 우리는 거의 자동적이고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극을 우리는 보상이라 부른다.

성공적인 신체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뇌와 신체 간의 원활한 소통은 필수다. 신체 각 기관은 각자에게 발생한 항상성의 불균형을 알리는 신호들을 끊임없이 뇌로 보내고, 뇌는 이러한 신호들을 수집하여 좀 더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기관을 선별해 항상성을 유지시킨다. 나아가 다음번에는 이를 좀 더 일찍 예측해 방지할 수 있는 끊임없이 외부 환경을 활용한다. 생명의 유지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우리의 신체와 뇌가 서로 협응(協應)하며 신체항상성을 유지해가는 과정을 알로스테시스(allostasis)라 부

른다(McEwen, 1998). 알로스테시스는 얼핏 보면 고전적인 항상성(homeostasis)과 비슷하지만, 유기체 전체의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좁은 의미의 항상성과는 차이가 있다. 미래에 더 심각한 불균형이 예상된다면, 현재 시급하지만 덜 중요한 불균형은 무시될 수도 있다. 이는 마치 집단이 위기에 처할 때 개인의 안위는 잠시 무시해야 하는 정부의 결정 혹은 팀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는 한 선수의 희생은 불사해야 하는 야구감독의 역할과도 유사하다. 알로스테시스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런 우선순위의 배분이며, 이 때문에 개체 차원의 생존이라는 큰 목적을 위해 신체 특정 기관의 불균형은 일시적으로 무시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도 한다.

8. 알로스테시스를 통한 이차적 보상의 탄생

배고픔이나 통증과 같이 즉각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가능한 미리 예측하고 방지하려는 알로스테시스 과정은, 신체 항상성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돈이나 칭찬과 같은 새로운 보상도 만들어낸다. 우리는 이러한 보상들을 이차적 보상이라 부른다.

이차적 보상은 일차적 보상에 비해 세 가지 주요 특성들을 가진다. 첫째는 예측성이다. 이차적 보상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미리 방지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돈이라는 보상은 현재보다 미래에 겪게 될 배고픔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는 포괄성이다. 이차적 보상은 다양한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 신호들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이 이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효율적인 보상이다. 한 예로, 돈은 음식, 물, 편안한 휴식처를 모두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만능보상이라는 점에서 여러 보상을 개별적으로 얻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 셋째는 영속성이다. 신체 불균형이 해소되더라도 이차적 보상을 얻고자 하는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포만감과 함께 사라지는 음식에 대한 보상과는 달리, 돈과 같은 이차적 보상은 훨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동기를 만들어내는 주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이차적 보상은 처음 학습되기는 어렵지만, 일단 학습되고 나면 일차적 보상보다 우리의 행동을 훨씬 더 강력하게 지배할 수 있다. 끊임없이 더 강한 보상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집착은 무척이나 강해서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일부러 유발하기도 한다. 롤러코스터, 공포영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과 같이 감당할 수 있는 불균형이 커질수록 이를 해소한 뒤에 오는 쾌감도 커지며, 그만큼 이에 대한 집착도 커진다.

9. 가장 효율적인 이차적 보상,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타인으로부터의 관심, 인정, 존경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보상은 일생에서 가장 먼저 학습되는 이차적 보상이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기가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엄마 혹은 ‘타인’이라는 존재는 오랜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그 어떤 보상보다 강력한 것으로 각인될 수 있다. 인간이라는 종은 신체 항상성을 유지하고, 후대에 유전자를 전달하고자 하는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을 위해 노력하도록 진화해왔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외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발달시켜온 알로스테시스 과정의 결과물이 바로 ‘인정 욕구’다. 인정 욕구는 인간이라는 종을 다른 종들과 구분하는 가장 핵심인 특성이다. 물론 인간의 복잡한 사회적 행동들을 모두 인정 욕구와 연결 짓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자신이 속한 사회적 환경 내에서 인정 욕구를 충족시킬 최적의 전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정 욕구의 본 모습은 가려지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행동들만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인정 욕구는 겸손과 같이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으로까지 그 모습을 감추기도 한다. 개인의 사회적 행동이 모여 문화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문화는 다시 다음 세대가 가진 인정 욕구에 의해 빠르게 재학습된다. 지난 세대가 이룬 문화의 핵심을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전달하

기 위해 인정 욕구는 인간이 발명한 가장 효율적인 세대 간 문화 전달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신경학적 공동화폐인 복내측 전전두피질은 물질적인 보상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의 칭찬이나 인정과 같은 사회적 보상에도 반응한다 (Lin, Adolphs, & Rangel, 2012). 우리는 일상 속에서 타인의 비난을 감수하고 돈을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포기하고 타인의 호감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보상 간의 비교 또한 복내측 전전두피질의 공동화폐기능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선택의 순간에 나타나는 개인차는 그 사람이 그동안 겪어온 경험들을 통해 돈과 칭찬이라는 보상이 신체 항상성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준다. 일례로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호감이 자신의 신체 항상성 유지에 도움이 됐던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돈보다는 사회적 보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높은 가치의 공동화폐로 환산되는 사회적 보상은 영웅적인 이타행동이나 유혹을 이겨내는 자기통제력 등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복내측 전전두피질이 환산하는 공동화폐의 단위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보상의 단위와도 구분된다. 내 일생의 경험들이 녹아 있는 이 공동화폐의 단위는 나의 신체항상성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내며, 오직 나에게만 의미를 띠는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화폐라고 할 수 있다.

10. 공정성을 갈구하는 이유

앞서 소개한 연구에서 금전적 보상보다 공정성이 복내측 전전두피질의 활동을 증가시키는데 더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단지 몇천 원 정도의 돈을 더 받는 것보다 무시당했다는 경험이 나의 신체 항상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기 때문일 수 있다. 그렇다면 금액을 증가시키면 결과가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할까? 아마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역전이 발생하는 제안 금액의 수준은 사람마다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 차이는 아마도 그 사람의 일생 동안 돈 혹은 사회적 관계가 그 사람의 신체 항상성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부족한 돈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많았던 사람과 타인들로부터 무시당해서 괴로웠던 경험이 많았던 사람은 서로 다른 지점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뇌과학적 증거들은 불공정에 대항하는 인간의 복잡한 사회적 행동이 논리적인 이성이 아닌 일생 동안 경험해 온 수많은 감정들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며 공정성에 관한 많은 새로운 질문들을 던진다.

최후통첩 게임을 사용한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다.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최후통첩 게임을 수행하는 동안 중간에 가끔씩 간단한 수학적 계산을 수행했다. 그리고 각 참가자들에게 성적에 따라 매긴 순위를 제시했고 각 참가자는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순위가 높은 조건과 낮은 조건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조작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상대방보다 비교적 우월한 위

치를 얻은 상황에서 불공정한 제안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실험 결과, 예상대로 계산 능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었던 참가자들은 불공정한 제안을 거절할 확률이 증가했고, 이들의 뇌섬엽의 반응 또한 높게 나타났다(Hu et al., 2016).

불공정하게 적은 액수지만 수락하는 선택의 이면에는 단순히 금전적 이득 추구보다는 타인과의 갈등을 피하려는 동기가 중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높은 수학 성적으로 높아진 자존감은 타인과의 갈등을 직면할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닐까? 사실 수학 계산 능력은 최후통첩 게임과 거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학 점수로 인해 높아진 자존감이 상대방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항할 힘을 더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자존감은 불공정한 제안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에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며, 최후통첩 게임에서 공정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선택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남성 참가자들에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테스토스테론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로 구분한 뒤 이들이 최후통첩 게임에서 제안자의 불공정한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다(Dreher et al., 2016). 테스토스테론은 인간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종들에게서 공격성과 경쟁심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실험 결과, 테스토스테론의 수준이 높은 참가자들은 낮은 참가자들에 비해 불공정한

제안을 준 상대에게 더 높은 처벌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들은 공정한 제안을 한 상대에게는 오히려 테스토스테론의 수준이 낮은 참가자들보다 더 높은 보상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테스토스테론의 기능이 단순히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 이상임을 보여준다. 동물들을 대상으로 밝혀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 수준이 높은 수컷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는 경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테스토스테론이 높은 남성들이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불안정한 집단생활 속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 때문일 수 있다. 고도로 복잡해진 인간 사회에서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경쟁자를 물리치는 공격적 행동보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감싸는 관대함이 더 성공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불공정한 제안자를 향한 높은 공격성과 공정한 제안자를 향한 관대함은 둘 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려는 하나의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인정받고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욕구는 불공정에 저항하는 모든 사회적 행위들의 기저에 깔린 공통된 동기가 될 수 있다.

어쩌면 응답자가 공정한 제안을 반기거나 불공정한 제안을 혐오하는 이유는 이러한 제안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거나 혹은 위협하는 외부자극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불공정한 제안을 거절하는 응답자의 행동은 금전적인 보상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사회적 지위 혹은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한 일

종의 자기방어적 행동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방어 행동 역시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에 의해 예상되는 생존의 위협, 즉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알로스테시스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11. 자기중심적 공감과 공정성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어떤 이는 자신의 안위와 전혀 관계 없는 일에 대해서도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곤 한다. 그렇다면 부당한 권력에 희생당하는 사람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마주할 때, 이들과 전혀 관련 없는 누군가에게 강한 정의감이나 이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감정들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이들로 하여금 강한 이타주의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공감의 힘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서는 공감의 신경학적 기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문에서 한 유튜버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이 유튜버의 아내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있었던 한 에피소드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공분한 사실에 대한 내용이었다. 어느날 이 아내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에게 집중할 것을 요구하며 “Focus!”라고 말하는 순간 옆에 있던 그 유튜버의 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고 한다. 토종 한국인인 이 며느리의 발음이 미국 욱(fu*k us!)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발음을 교정해주기 위해 진지하게 훈계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이라고 분노했다. 어떤 이는 자신도 미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으며 그 당시 다른 미국인들이 영상 속의 시어머니와 똑같은 표정을 지으며 자신을 쳐다봤다고 말하며 그때의 당혹감과 두려움이 다시 생생하게 떠오른다는 말까지 전했다.

느닷없이 아기에게 욕을 하는 며느리의 행동에 평생을 그 단어의 혐오스러움을 온몸에 내재해 온 시어머니의 반응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을지 모른다. 물론 그 단어가 자신이 생각했던 단어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안심하기는 했지만 처음 받았던 그 느낌을 바로 떨쳐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시어머니의 행동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던 시어머니의 행동이나 이 행동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행동이나 모두 자신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타인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타인을 향한 도덕적 판단의 기저에는 내가 의식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의 과거 경험과 그때의 감정이 뿌리 깊이 스며들어 있다.

공감이란 타인과 감정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감정의 전이(轉移)로 정의된다. 별다른 노력 없이 즉각적으로 감정이 유발된다는 점에서 의식적으로 나와 다른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심리적 과정인 ‘관점이동(perspective-taking)’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공감은 마치 자극에 대한 반사적 반응처럼 무의식적인 과정인 반면, 관점이동은 감정반응이 결여된 고도의 추론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감과 관점이동은 종종 혼동되기도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신경회로를 사용한다(Saxe & Baron-Cohen, 2006). 공감과 달리 관점이동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혹은 타인의 호감을 얻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들도 정상적인 관점이동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때, 우리는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감정을 경험한다고 믿는다. 과연 그럴까? 실제로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현 신체 상태에 따라 타인을 향한 공감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증거들이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심한 갈증을 느끼는 상태라면 상대방도 심한 갈증을 느낄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Van Boven & Loewenstein, 2003). 이처럼 내 신체 상태에 따라 공감의 종류와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나의 현재 신체 상태가 타인과 유사한 상태에 놓여있지 않다면 그 사람과의 공감은 어려울 수 있다. 어쩌면 이 때문에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거나 나의 신체 상태와 동떨어진 상대방의 경험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것인지도 모른다. 공감은 자기중심적인 감정이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때 나는 필연적으로 나 자신의 과거 그리고 현재의 경험을 재료로 사용한다. 사용할 재료가 다르다면, 그 결과물도 다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의 감정을 타인에게 그대로 투사하는 것은 종종 공감보다는 오히려 무례함이나 폭력으로 나타나기 쉽다. 나와 다른 인종, 성별, 나이를 가진 누군가의 감정을 나의 과거 경험을 재료로 재구성한 결과로 판단하려 할 때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세상에는 각기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의 수 만큼이나 많은 다양한 ‘공정함’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역설적이게도 자기중심적인 공감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히려 자신의 감정에 더 집중하고 더 세밀히 살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심장박동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타인의 표정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Grynberg & Pollatos, 2015), 타인의 고통에 더욱 민감히 공감할 수 있다(Terasawa, Moriguchi, Tochizawa, & Umeda, 2014). 또한,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도 공감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Bird et al., 2010). 이러한 사실들은 자신의 신체신호에 귀기울여 감정을 섬세하게 인식하는 능력과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다르지 않으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끊임없는 자기감정인식을 통해 다양한 신체 상태에 상응하는 적절한 감정반응들을 찾아가는 삶의 태도는 풍부하고 섬세한 감정리스트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감정리스트는 타인과의 공감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풍부한 재료를 제공한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재구성해낸 타인의 감정은 상대적으로 타인의 실제 감정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뛰어난 공감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섬세하게 분류함으로써 신체로부터 오는 신호들을 매 순간 예민하게 포착해 적절한 반응을 찾는 삶의 태도로부터 온다. 매 순간 충실하게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귀기울일 때,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공감은 더 정확해지고 확장될 수 있으며, 타인과의 감정소통능력 또한 향상될 수 있다. 공감능력을 키우기 위해 애써 타인의 감정을 이해

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인지하고, 성찰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이유다.

12. 평판을 위한 공정성

내 자존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그렇다고 내가 피해자에 대해 깊이 공감하지도 않는 상황에서도 누군가의 부도덕함이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분노하는 행동은 어떤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타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자신의 도덕적 선함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도덕적인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나의 도덕적 평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타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지 직접 말하는 것보다 평판을 높이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규명했다(Jordan, Sommers, Bloom, & Rand, 2017). 다시 말하면, 직접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깊은 공감이 없더라도 불공정한 상황 혹은 대상을 비난하고 분노하는 행동은 나의 공정함과 도덕성은 알리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나의 평판을 위해 누군가를 비난하는 행위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효과적으로 평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전략인 동시에 잘못 사용할 경우 오히려 평판에 더 큰 훼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지지하는 증거로 사람들은 그냥 내놓고 비도덕

적인 사람보다 오히려 위선자를 더 혐오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Jordan et al., 2017). 위선자들은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비난 뿐 아니라 거짓 신호를 보낸 것에 대한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 처벌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시인함으로써 거짓 신호를 포기한 '정직한' 위선자들에 대해서는 비난을 멈추지만, 일단 거짓 신호를 보낸 뒤 이와 관련이 없는 죄를 인정한 위선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난의 수위를 낮추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타인의 부도덕성을 비난하는 나의 공정하고 도덕적인 행위가 나의 평판을 높이는데 매우 효율적인 도구가 되는 동시에 나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위험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공정성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욕구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예측을 가능케 한다. 바로 공정성과 평판이 충돌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항상 공정성이 평판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흥미롭게도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이 경우 많은 영화나 소설 속에서 소수의 편에 서는 사람을 영웅으로 묘사하곤 한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수의 희생을 막기 위해 저항하는 사람에게 더 호감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Lee, Sul, & Kim, 2014). 이런 암묵적인 사회적 규범을 거스르는 일은 큰 용기를 요구한다. 만약 다수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했을지라도 선택의 순간 나를 지켜보는 누군가의 시선은 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최근 한 연구에서는 실험자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가 희생하는 선택을 거부하는 경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Lee, Sul, & Kim, 2018).

복잡한 사회적 관계 안에서 매 순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공정하지 않은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실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두려움이 지나치게 되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공정성의 책임을 회피하게 되기도 한다. 한 연구에서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두 사람 중 한 명에게만 보상을 주는 선택을 해야 할 경우,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아무에게도 보상을 주지 않는 선택을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Gordon-Hecker, Rosensaft-Eshel, Pittarello, Shalvi, & Bereby-Meyer, 2017). 흥미롭게도, 둘 중 한 명에게 무작위로 한 명을 선정하여 그 사람에게만 보상을 지급하는 옵션이 있을 경우 모든 참가자들이 이 옵션을 선택했다. 이 결과는 공정성 자체를 위한 동기보다 공정하지 않은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싶지 않은 동기가 더 강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나와 가까운 사람, 혹은 내가 속한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이 가진 나에게 대한 평판은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평판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성의 문제가 내가 속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경쟁으로 연결될 때 공정성은 더 위협받을 수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우리 연구실의 채지환 연구원은 실험을 하나 고안했다. 먼저 참가자들에게 얼굴 혹은 꽃병으로 보이는 애

매한 시각자극을 보여주고 어떤 것이 보이는지 물어본 뒤 자신과 같은 것을 본 사람을 내집단, 다른 것을 본 사람을 외집단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퀴즈를 풀기 위한 시간을 내집단과 외집단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했다. 그 결과, 퀴즈 풀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두 집단에게 공평하게 분배했으나 시간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내집단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e et al., 2022). 이 실험의 흥미로운 점은 애매한 그림을 보는 방식이 나와 같다는 단순한 사실로 결정된 내편을 위해서도 공정성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와 생사고락을 함께 한 가족이나 동료에게 해가 갈 수 있는 공정성을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마치 신기루와도 같은 공정성을 향해 그나마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공정한 선택의 책임을 한 개인에게 모두 전가하고 비난하는 다수의 폭력에 더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다.

13. 공정성을 위한 뇌과학적 제언

지금까지 공정성의 기저에 나의 자존감 혹은 평판을 높이려는 욕구와 자기중심적인 공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과연 완전한 공정함이란 것이 존재할까? 아니라면 공정성이라는 것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것일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성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사회를 이루는 한 구성원으로서 공

정한 사회를 위해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각자의 존중받고 싶은 욕구들이 모여 서로 부딪히며 새로운 균형 상태를 찾아 나아가는 힘에서 비롯될 수 있다. 어쩌면 완벽한 공정성이란 공정함을 추구하는 나의 행동, 생각, 감정들 뒤에 숨겨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구들을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찾아내서 인식하고, 이 욕구가 나 자신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주위의 다른 이들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일상의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일지 모른다. 그리고 공정함이란 이러한 노력 뒤에 얻게 되는 어떤 고정된 하나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과정 자체일 수 있다. 이 과정은 또한 나의 신체항상성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극단적인 이기적 노력과도 다르지 않다.

공정의 문제는 우리의 신체 내에서도 중요하다. 신체 각 부위들이 경험하는 불균형들에 대해 우선권을 결정하는 뇌가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산소를 공급하는 심장은 자신의 역할과 처우에 대해 공정하다고 생각할까?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신체적 혹은 심리적 질병들은 우리 신체 내에서 무너진 공정성이 초래한 결과물일 수 있다. 이처럼 신체적 균형, 심리적 균형,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균형이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의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으로 발생한 심리적 불균형이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런 사회적 불균형은 또다시 개인의 심리적 불균형을 가속화시켜

개인의 신체 항상성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낸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 자신의 신체 항상성의 균형과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행위들이 모여 건강하고 균형잡힌 사회를 이룰 수 있다. 심리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공감의 자기중심성을 인식하고, 공정성과 이타성이라는 가치 아래 단단한 토대를 이루고 있는 인정욕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갈등과 감정을 경험할 때 그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훈련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기감정인식은 신체 항상성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뇌가 발달시킨 알로스테시스의 가장 본연의 기능이며, 나의 신체 항상성과 심리적 균형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변화시켜야 할 것을 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구성원 각자의 치밀하고 섬세한 자기감정인식을 통해서만 어느 누구의 무조건적인 양보나 희생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사회적 가치인 공정성을 향해 다가갈 수 있다. 마치 힘차게 돌아가는 팽이가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유지할 수 있듯이, 각자의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개인들이 모여 사회적 균형의 토대를 이루고 공정한 사회라는 목표를 향해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5강 참고 문헌

- Andersen, S., Ertac, S., Gneezy, U., Hoffman, M., & List, J. A. (2011). Stakes matter in ultimatum games. *American Economic Review*, 101(7), 3427-3439.
- Barrett, L. F. (2017). The theory of constructed emotion: an active inference account of interoception and categorization. *Soc Cogn Affect Neurosci*, 12(1), 1-23. doi:10.1093/scan/nsw154
- Bird, G., Silani, G., Brindley, R., White, S., Frith, U., & Singer, T. (2010). Empathic brain responses in insula are modulated by levels of alexithymia but not autism. *Brain*, 133(Pt 5), 1515-1525. doi:10.1093/brain/awq060
- Chae, J., Kim, K., Kim, Y., Lim, G., Kim, D., & Kim, H. (2022). Ingroup favoritism overrides fairness when resources are limited. *Sci Rep*, 12(1), 4560. doi:10.1038/s41598-022-08460-1
- Craig, A. D. (2002). How do you feel? Interoception: the sense of the physiological condition of the body. *Nat Rev Neurosci*, 3(8), 655-666. doi:10.1038/nrn894
- Critchley, H. D., & Harrison, N. A. (2013). Visceral Influences on Brain and Behavior. *Neuron*, 77(4), 624-638. doi:10.1016/j.neuron.2013.02.008
- Critchley, H. D., Wiens, S., Rotshtein, P., Ohman, A., & Dolan, R. J. (2004). Neural systems supporting interoceptive awareness. *Nat Neurosci*, 7(2), 189-195. doi:10.1038/nn1176
- Dreher, J. C., Dunne, S., Pazderska, A., Frodl, T., Nolan, J. J., & O'Doherty, J. P. (2016). Testosterone causes both prosocial and antisocial status-enhancing behaviors in human males. *Proc Natl Acad Sci U S A*, 113(41), 11633-11638. doi:10.1073/pnas.1608085113
- Gordon-Hecker, T., Rosensaft-Eshel, D., Pittarello, A., Shalvi, S., & Bereby-Meyer, Y. (2017). Not taking responsibility: Equity trumps efficiency in allocation decisions. *J Exp Psychol Gen*, 146(6), 771-775. doi:10.1037/xge0000273
- Grynberg, D., & Pollatos, O. (2015). Perceiving one's body shapes empathy. *Physiol Behav*, 140, 54-60. doi:10.1016/j.physbeh.2014.12.026
- Hu, J., Blue, P. R., Yu, H., Gong, X., Xiang, Y., Jiang, C., & Zhou, X. (2016). Social status modulates the neural response to unfairness. *Soc Cogn Affect Neurosci*, 11(1), 1-10. doi:10.1093/scan/nsv086

- Jordan, J. J., Sommers, R., Bloom, P., & Rand, D. G. (2017). Why Do We Hate Hypocrites? Evidence for a Theory of False Signaling. *Psychol Sci*, 28(3), 356-368. doi:10.1177/0956797616685771
- Kim, H., Shimojo, S., & O'Doherty, J. P. (2011). Overlapping responses for the expectation of juice and money rewards in human 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 *Cereb Cortex*, 21(4), 769-776. doi:10.1093/cercor/bhq145
- Knoch, D., Pascual-Leone, A., Meyer, K., Treyer, V., & Fehr, E. (2006). Diminishing reciprocal fairness by disrupting the right prefrontal cortex. *Science*, 314(5800), 829-832. doi:10.1126/science.1129156
- Lee, M., Sul, S., & Kim, H. (2014). The impact of moral decision style on impression form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8(2), 201-223.
- Lee, M., Sul, S., & Kim, H. (2018). Social observation increases deontological judgments in moral dilemmas.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39(6), 611-621.
- Lin, A., Adolphs, R., & Rangel, A. (2012). Social and monetary reward learning engage overlapping neural substrates. *Soc Cogn Affect Neurosci*, 7(3), 274-281. doi:10.1093/scan/nsr006
- McEwen, B. S. (1998). Stress, adaptation, and disease. Allostasis and allostatic load. *Ann N Y Acad Sci*, 840, 33-44. doi:10.1111/j.1749-6632.1998.tb09546.x
- Sanfey, A. G., Rilling, J. K., Aronson, J. A., Nystrom, L. E., & Cohen, J. D. (2003). The neural basis of economic decision-making in the Ultimatum Game. *Science*, 300(5626), 1755-1758. doi:10.1126/science.1082976
- Saxe, R., & Baron-Cohen, S. (2006). The neuroscience of theory of mind. *Soc Neurosci*, 1(3-4), i-ix. doi:10.1080/17470910601117463
- Seth, A. K. (2013). Interoceptive inference, emotion, and the embodied self. *Trends Cogn Sci*, 17(11), 565-573. doi:10.1016/j.tics.2013.09.007
- Tabibnia, G., Satpute, A. B., & Lieberman, M. D. (2008). The sunny side of fairness: preference for fairness activates reward circuitry (and disregarding unfairness activates self-control circuitry). *Psychol Sci*, 19(4), 339-347. doi:10.1111/j.1467-9280.2008.02091.x
- Terasawa, Y., Moriguchi, Y., Tochizawa, S., & Umeda, S. (2014). Interoceptive sensitivity predicts sensitivity to the emotions of others. *Cogn Emot*, 28(8), 1435-1448. doi:10.1080/0/02699931.2014.888988
- Van Boven, L., & Loewenstein, G. (2003). Social projection of transient drive states. *Pers Soc Psychol Bull*, 29(9), 1159-1168. doi:10.1177/0146167203254597

6강

공정과 성차, 그리고 과학

임소연

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 교수. 과학기술학자.
페미니즘과 과학기술학의 접점에서 인간 향상 기술과
몸, 성형 수술, 이공계 여성, 신유물론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저서로 『겸손한 목격자들』(2021, 공저)과
『과학 기술의 시대 사이보그로 살아가기』(2014) 등이
있고 한겨레신문에 『여성, 과학과 만나다』(2020-2021)를
연재했다.

들어가며

과학은 공정한가? 과학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가? 남녀차별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는 사라져야 하는가? 이 글은 공정과 성차, 그리고 과학의 다양한 교차 지점을 살펴본다. 우선 남성중심적인 과학의 역사 속에서 사회의 성별 고정관념과 과학의 성 편향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지 논의할 것이다. 이후 뇌의 성차를 중심으로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함께 공정한 사회와 공정한 과학을 추구하는 성차 연구의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과학의 남성적 탄생

객관성의 상징인 과학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 1960-70년대 과학사회학자 로버트 머튼(Robert Merton)은 근대 서구 과학이 공유주의(communism), 보편주의(universalism), 무사공평주의(disinterestedness), 제도적 회의주의(organized skepticism)라는 규범을 갖는다고 보았다(Merton, 1973). 공유주의는 과학지식이 개별 과학자의 소유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해야 하는 지식이라는 의미이다. 보편주의는 과학이 보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과학 이론의 진리 여부가 과학자의 인종, 성별, 국적, 종교 등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무사공평주의는 과학 연구에 과학자의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회의주의는 공유주의와 보편주의, 그리고 무사공평주의를 실현시키는 일종의 방법론으로서 과학 명제가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과학은 인간의 다른 어떤 행위나 제도보다 더 공정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후 많은 학자들이 밝힌바 머튼이 주장한 과학자 사회의 네 가지 규범은 말 그대로 규범일 뿐 실제 과학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과학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과학이 역사와 사회의 산물이라는 말과도 통한다. 과학은 자연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 주장처럼 보이지만 사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지역의 특정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적, 사회적 구성물이다. 우리가 현재 과학이라고 부르는 지식, 활동, 혹은 제도는 철저하게 서구근대역사의 산물이다. 근대과학 이전에는 자연철학이 존재했다. 실험이 지식 생산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근대과학의 가장 큰 특징이자 과학을 자연철학과 구분 짓는 핵심이었다. 자연철학이 자연을 그대로 두고 보면서 인간의 이성적 사유로 만물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활동이었다면, 현대 과학기술의 기원인 근대 과학은 자연에 개입하고 자연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사실을 만드는 것이다.

성차와 관련한 과학의 불공정함, 즉 과학의 성 편향과 성별 격차는 근대 과학의 초기 역사에서부터 뚜렷하게 나타난다. 근대 이전 자연철학에서 자연은 여성으로 상상되었으며 주로 여신으로 형상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완전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반면 실험이 중심이 되는 근대 과학에서의 자연은 실험을

통해서 조작이 가능한 대상이었다. 이때 자연은 독자적인 행위성을 가지고 때로는 경외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여신이 아니라 과학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는 수줍은 여인으로 묘사되었다. 근대 과학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실험을 제안했던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은 1602년에 쓴 “시간의 남성적 탄생”이라는 제목의 미출판된 글에서 과학을 자연과의 ‘결혼’ 그리고 여성에 대한 ‘심문’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였다. “과학하는 사람(man of science)”으로 불렸던 16-17세기의 과학자는 주로 베이컨을 따랐던 영국의 신사들이었다. 도구를 제작하여 실험을 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보고서로 써서 학회에서 발표하는 그들의 과학 활동은 당시 신사 문화의 일부이기도 했다. 이와같이 근대 과학은 정신과 실천에서 모두 남성이 중심에 있었다.

과학자의 성별에 따른 격차는 21세기 한국 이공계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2020년 한국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센터에서 발간한 〈2010-2019 남녀 과학기술 인력 현황〉 보고서를 보면 2019년 이공계 학과에 입학한 대학생 중 여성의 비율은 29.2%로 70.8%를 차지하는 남성의 절반에 못 미친다. 애초부터 많지 않은 이공계 여성의 수는 위로 올라갈수록 더 줄어든다. 대학 졸업 후 과학기술인의 진로를 밟아 관리자 직책까지 올라가는 여성의 비율은 10.6%에 불과하다. 자연 계열에 비해서 공학 계열은 성별 격차가 더 크다. 각각 자연과학 계열과 공학 계열에 속하는 여학생 비율은 각각 52.3%와 25.1%로 큰 차이를 보인다. 반대로 자연 계열의 의상학 과나 식품 영양학과는 여학생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여 남성

이 소수인 남녀 격차를 보여준다. 이러한 성별 격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자가 논리적 사고에 강하다’거나 ‘여자는 감성적이다’와 같은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이 특히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사회와 과학, 고정관념과 편향의 상호구성

과학은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인간이 만드는 다른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은 사회의 영향을 받으며 그 결과 과학에 여러 가지 유형의 성 편향이 나타난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유형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이 과학적 오류를 생산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 중 하나가 18세기 중반의 골격학이다. 18세기 중반 영국의 해부학자 존 바클레이는 여성과 타조의 골격, 남성과 말의 골격을 나란히 그려 넣은 해부학 책을 썼다. 타조와 비교된 여성의 골격은 작은 두개골과 넓은 골반이 두드러져 표현됐는데, 이는 낮은 지능과 출산 기능이라는 여성 신체의 특성을 남성의 것과 대조하여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지금은 염색체 연구의 흑역사가 되어 버린 1960-70년대 Y염색체 연구 사례도 있다. 1965년 영국 세포유전학자 패트리샤 제이콥스는 Y염색체를 하나 더 가진 XYY염색체 남성들이 공격적인 성향을 갖는다는 연구를 <네이처>지에 발표했다. 이후 약 10년 동안 인간의 Y염색체에 대한 연구의 약 80%가 XYY염색체를 가진 남성에게 집

중되었다. 제이콥스의 연구에 오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던 배경에는 Y염색체가 남성적인 성향으로 간주되는 폭력성을 결정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상적 기술의 영역으로 오면 성별 고정관념의 흔적을 더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인간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많은 기계들은 여성의 목소리로 말하고 여성의 이름이나 외형적 특성을 갖는다.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불리는 국내외 음성인식장치 제품의 대부분이 개발 초기 여성의 목소리로 자동설정되어 있어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가사나 육아와 관련한 과학 기술은 주로 여성을 사용자나 소비자로 호명한다. 임신과 피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여성의 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싱크대 등 주방용 가구도 여성의 몸에 맞춰져 있다. 한국가구시험연구원에서 인증한 가정용 싱크대의 표준 높이는 85cm로 전통적으로 가사일을 도맡아온 여성의 평균 키(155~160cm)에 맞춘 것이다. 이는 주방이 여성의 공간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반영한다. 최근 등장하는 디지털 가상 인간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로지, 미국의 미켈라, 일본의 이마 등 국내외 광고 시장에서 떠오르는 가상 모델은 모두 여성이며 젊고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다.

과학기술의 성 편향이 중요하고 이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이유는 과학기술이 사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과학 기술은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정당화하거나 강

화하는 데에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비서나 안내원 역할을 하는 기계가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친절한 보조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은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여성의 몸에 맞추어진 가구로 채워진 주방은 남성의 가사노동을 부자연스럽게 만들 것이다. 진화생물학이나 뇌과학은 남녀의 성 역할과 그에 따른 성차별을 자연스러운 것, 타고난 것으로 정당화하는 근거로 자주 쓰인다. “여자의 뇌는 양육을 잘하기 위해 공감과 의사소통에 더 적합하게 진화해 왔고, 남자의 뇌는 사냥을 잘하기 위해 논리나 체계를 이해하는 데 더 적합하게 진화해 왔다.” “아빠의 공감 및 소통 능력이 부족하면 아빠와 자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아빠는 엄마에게 공감과 소통 방법을 배워야 한다.” 2021년 4월 말 교육부가 아버지를 위한 자녀 교육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공식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계정에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삭제한 카드 뉴스의 실제 내용이다.

뇌의 성차, 고정관념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과학?

생물학적 성차는 과학의 성 편향 및 성별 격차의 원인이 되는 성별 고정관념을 논할 때 다루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교육부 카드뉴스에는 인간의 뇌를 “여자의 뇌”와 “남자의 뇌” 둘로 나누고 두 뇌의 차이를 설명한다. 여자의 뇌와 남자의 뇌는 과연 정말 다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성의 뇌와 남성의 뇌는 크기부터

다르다. 남성의 뇌가 여성의 뇌보다 클 확률은 84%이고 여성의 뇌가 남성의 뇌보다 클 확률은 16%이다. 확연한 차이이다. 하지만 이는 남녀 집단의 평균 차이를 보여주는 수치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의 성별 정보만으로 그 사람의 뇌 크기를 맞출 수 없으며 반대로 뇌 크기만 보고 뇌의 주인의 성별을 가릴 수 없다.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키가 크지만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보다 키가 크지는 않으며 어떤 사람의 키 정보만으로 그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맞출 수는 없다. 실제로 남녀 뇌의 크기가 비슷할 확률은 48%나 된다.

여기에 더해 남성의 뇌가 여성의 뇌보다 크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능력의 차이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중요하다. 즉 남성의 뇌가 여성의 뇌보다 대체로 더 크다고 해서 남성이 여성보다 대체로 더 똑똑하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2018년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심리학과와 스튜어트 리치 교수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가 보유한 여성 2,750명, 남성 2,466명의 뇌 자기 공명 영상(MRI) 데이터로 남녀 뇌의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뇌의 전체 크기는 남성이 여성보다 컸으나 대뇌 피질(대뇌 표면 신경 세포)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두껍게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녀 사이에 평균적인 지능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크기나 지능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남녀 뇌의 차이를 가릴 수 없다면 남녀 뇌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떨까? 한때 인기를 끌었던 책의 제목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처럼 여성의 뇌와 남성의 뇌가 서로 다른 능력과 성향에 특화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교육부 카드뉴스의 논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2021년 미국 국립 보건원 산하 정신 건강 연구소의 발달뇌유전학자 아민 라즈나한과 그의 연구팀은 남녀 뇌의 차이를 해부학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 남성의 뇌는 후두엽·편도체·해마가, 여성의 뇌는 전액골 피질과 섬이 각각 다른 성별의 뇌보다 평균적으로 더 크다고 나타났다. 전자는 시각과 기억력에 관련된 부위로, 후자는 의사결정과 미각, 자기 조절 등과 관련된 부위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남자는 시각 정보를 잘 기억하고 여자는 자기 견해를 내세우기보다 합의를 잘 이끌어 낸다’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연구는 발표 직후 연구자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남학교와 여학교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쓰였다.

이처럼 생물학적 성차, 특히 뇌의 성차가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사례는 흔하다.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오류가 존재한다. 우선 특정한 뇌 부위가 크다는 사실이 곧 해당 뇌 부위와 연관된 기능이 우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없다. 위의 연구는 단지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뇌 부위에 회백질(신경 세포가 모여 회백색을 띠는 부분)이 더 많음을 보여줄 뿐이다. 여기에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뇌의 주인이 그 부위와 관련된 기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학습했다는 정도이지 그 능력의 우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나아가 뇌의 해부학적 차이는 능력 차이를 설명하는 원인이기보다 오히려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에 가깝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남녀 뇌의 해부학적 차이가 타고난 차이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차이라는 것이다. 뇌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런던 택시 기사들의 뇌에서 기억력과 연관된 부위인 해마가 평균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 결과를 놓고 모든 런던 택시 기사들이 선천적으로 큰 해마를 타고났다고 보는 것과 택시 기사로 일하면서 런던의 복잡한 길을 외우느라 해마가 커졌다고 보는 것 중 어떤 쪽이 더 그럴듯한가? 후자를 택했다면 같은 논리로 남녀 뇌의 차이 역시 남녀가 그렇게 다르게 타고 났다고 보다는 남녀가 수행한 서로 다른 사회적 역할의 영향을 받은 결과일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뇌의 성차 연구를 근거로 성별 고정관념을 정당화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의 왜곡이자 오용이다.

사회를 공정하게, 뇌의 성차 연구 다르게 하기

과학이 남녀의 뇌가 다르다고 말한다면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대할 수 있을까? 생물학적 성차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을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는 사용하지 말라.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해 왔다. 뇌의 성차는 남녀 집단의 평균적 차이일 뿐 개별 남녀의 특성으로 일반화할 수 없으며 해부

학적 차이일 뿐 타고난 능력과 자질의 차이는 아니라고 말이다. 그러나 과학 연구의 왜곡과 오용에 대한 비판은 과학적 사실과 사회적 해석 및 가치판단을 분리시킴으로써 과학에게 면죄부를 주어온 것이 사실이다. 과학은 차별이 아닌 차이를 말할 뿐이니 차별에 대한 책임은 오직 과학을 왜곡하고 오용한 사람들에게나 물어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 뇌의 성차 연구가 있다.

이 새로운 뇌 연구를 이끈 이는 이스라엘 텔아비브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다프나 조엘이다. 조엘은 뉴로 젠더링 네트워크라는 연구자 모임에 속해 있기도 하다. 뉴로 젠더링 네트워크는 2010년부터 시작된 유럽과 북미, 호주의 여성 과학자와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다학제적인 페미니스트 신경과학 연구를 공동의 목표로 삼아 왔다. 이들은 뇌의 성차를 무조건 부정하지 않는다. 이들의 목표는 이분법적으로 단순화된 성 인식에 부합하는 과학 지식을 재생산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지식은 쉽게 이분법적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의 근거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책임을 사회에 떠넘기는 대신 책임 있는 과학 지식을 생산하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이 뇌의 성차에 관한 새롭고 세밀한 서사를 만들어야 하고 새로움과 세밀함을 위해 더욱 엄격한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해야 함을 주장해 왔다. 조엘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2015년 조엘이 이끄는 연구팀은 성인 1,400명의 뇌 MRI를 근거로 인간의 뇌를 116개 부위로 나누고, 그중 남녀 차이가 가장 큰 상위 10개 부위를 골라 각각 여성형, 남성형으로 분류했다. 여

성의 뇌와 남성의 뇌라는 구분이 실재한다면 남녀의 뇌에서 여성형 부위와 남성형 부위의 성별 분포가 둘 중 하나로 일관되게 관찰되어야 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하지만 연구 결과 그러한 일관성을 보인 뇌는 전체 가운데 6% 정도에 불과했다. 인간의 뇌를 두 성별로 나누기에는 너무나 적은 수치다. 조엘은 뇌를 정량적으로 측정해 뇌의 차이를 규명하는 자신의 연구가 뇌를 두 성별로 나누어 특징을 기술하는 기존 연구보다 더 과학적이라고 주장한다.

조엘은 인간 개개인의 뇌에서 여성형과 남성형 특징이 일관되게 발견되지 않고 뒤섞여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인간의 뇌를 여자의 뇌도 아니고 남자의 뇌도 아닌 ‘모자이크 뇌’라고 부른다. 조엘의 연구팀은 뇌의 성차를 남녀 집단이 아닌 개별 남녀에 기준을 두어 탐색하는 획기적인 가설과 연구 방법을 통해 집단의 평균적 차이를 개체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는 오류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뇌의 성차 연구의 혁신이라고 할 만하다. 모자이크 뇌 연구는 남녀 뇌의 집단적 차이가 존재함과 동시에 인간의 뇌는 둘로 나눌 수 없는 다양성을 지님을, 즉 개별 남녀를 차별할 근거가 없음을 과학적으로 보여준다. 성차와 공정의 공존이 가능한 것이다. 조엘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담아 <젠더 모자이크>라는 대중서를 펴내기도 했다.

과학을 공정하게, 다른 성차 연구하기

성차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남녀 뇌의 차이에 대한 지대

한 관심에 비하면 남녀의 다른 신체 부위가 갖는 차이에 대한 관심은 무관심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콩팥이나 폐의 성차보다 뇌의 성차에 압도적으로 관심이 더 높다. 뇌가 아닌 다른 장기에 성차는 있다. 이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 특정 장기와 관련된 질환의 유병률에서의 성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2-2017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화불량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남성 24만 6천 명, 여성 37만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많았다. 특히 이 중 20대 여성과 남성은 각각 1,165명, 544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으로 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이주엽과 박경식이 2018년에 발표한 논문 따르면, 여성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의 경우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 경험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 기준 및 그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과민성 장증후군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나 장의 성차는 뇌의 성차에 비해서 과학자들의 관심도 덜할뿐더러 사회적 논란이 된 적도 거의 없다.

그렇다면 다양한 신체 부위에 대한 성차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명의학 분야에서 성차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던 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1997년부터 2000년 사이 미국 FDA에서 판매 승인한 의약품 중 모두 10종이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승인 과정에서 잡아내지 못했던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그중 8종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여성에게 공정하지 못했던 과학의 모습이 드러

났다. 약품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주로 수컷 동물과 남성 피험자 등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기 때문이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다.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생명의학 연구 전반, 나아가 기술개발에서도 표준은 남성과 수컷의 몸이었다. 세포생리학 학회지에 실린 논문 중 75%가 세포의 성별을 표기하지 않았고 표기한 경우 남성이 20%인 반면 여성은 5%에 불과했다. 네이처 등에 실린 논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실험에 사용된 동물들 중 5분의 1만이 암컷이었으며 심혈관 질환 관련 임상시험에서 피험자 중 여성은 31%에 그쳤다. 그러니까 과학 연구에서 성별과 성차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는 성 중립이 아니라 성 편향이었다. 공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동차와 비행기 등 많은 기계들이 운전자와 조종사가 남성임을 전제로 개발되어 왔다. 반대로 성차를 고려하지 않은 주방용 가구는 가사일을 하는 남성을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여성과 남성 둘 다 가지고 있는 심장 관련 연구의 상황을 보자. 유럽(2006-2009년)과 미국(1997-2006년)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 관련 임상시험에서 남성 피험자는 많게는 전체의 80%에 달한다. 이 질환이 유독 남성 환자가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여성은 전체 심혈관 질환 환자의 절반 이상이며 사망률이 더 높기도 하다. 2018년 미국 심장 협회에 따르면, 심근경색이 처음 나타난 45세 이상 성인 중 1년 내 사망률이 남성은 18%, 여성은 23%로 여성에서 높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통계 여성의

삶'에 따르면, 심장 질환은 여성 사망 원인 중 2위일 정도로 여성에게 심각한 질환이다. 그러나 심혈관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에서 남성 피험자가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여성의 심혈관 질환은 조기에 발견되지 못하고 치료가 어려웠다. 이는 여성 심장 질환 사망률이 높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심장의 성차 연구가 중요한 이유이다.

나가며

과학의 역사 속에서 성차의 과학은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어 왔으며 성별 고정관념은 과학적 오류를 낳거나 한쪽 성별에게 매우 불편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과학기술로 이어지기도 했다. 언뜻 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성차는 제거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공정한 사회를 위해 과학이 해야 할 일은 '성차 없음'을 입증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과학 연구와 과학계의 문제의식은 공정과 성차를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와 가능성을 보여준다. 성차는 단순히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다. 성차의 존재는 개인을 성별에 따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를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성차의 부재가 특정 성별의 집단에 속한 개인의 건강과 질병을 이해하지 못하는 과학을 만들기도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과학이 밝힌바 성차란 집단에서는 있고 개인에서는 없으

며 뇌에서는 있어서 문제였고 위나 장, 심장에서는 없어서 문제였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차의 차이’에 주의를 기울이는 ‘새롭고 세밀한’ 과학이 필요한 이유이다.

7강

공정, 미래 조직의 핵심 가치

김정희원

에리조나주립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불평등, 공정과 정의, 다양성과 포용을 핵심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공정(fairness)’과 ‘정의(justice)’에 관한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정치, 교육과 같은 부문은 물론이고,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공정과 정의에 관한 대중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최근 ‘갑질’이나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펼쳐지고 있는데, 이는 조직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민감도가 전사회적으로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증가한 관심만큼, 실제로 조직 내에서 조직 공정성은 얼마나 많이 이야기되고 있을까? 뭔가 ‘게임의 룰’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공정’이나 ‘정의’라는 단어를 직장이나 팀에서 대놓고 꺼내는 쉽지 않다. 조직 내에서 정의가 확보되지 않으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그만큼 동기부여도 힘들어진다. 팀과 조직을 향한 신뢰도 쌓기 어렵게 된다. 그럼에도 조직 공정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정성은 오히려 조직 운영의 핵심 원리로 간주되어야 한다. 새로운 보상 시스템이나 회사 정책을 세울 때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추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기거나 조직 운영이 어려워졌을 때 원칙이나 철학이 없어 혼란을 겪게 된다.

공정성은 조직 운영 전반에 적용되어야 할 핵심 가치(core values)이다. 조직 정의(organizational justice) 역시 지속가능한 조직을 이끌기 위한 핵심 가치에 해당한다. 조직의 정책을 수립할 때, 일을 배분할 때, 업무의 프로토콜을 만들 때 공정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정성이 핵심 가치로 정착되어 있다면, 그 가치와 기준은 추후 조직 운

영을 위한 훌륭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조직 내의 정의와 공정성은 오랜 시간 동안 연구되었지만 공식적으로 ‘조직 정의’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것은 1980년대이다. 조직 정의는, 조직 내에서 크고 작은 의사 결정을 내릴 때 합당한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을 뜻한다. ‘합당한 원칙’은 분배 정의, 절차 정의, 관계 정의, 정보 정의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분배 정의(Distributive Justice)는 사내의 자원이나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배분하는 데 있어 공정한 원칙을 지키는 것을 뜻한다. 분배 정의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은 단순히 연봉과 성과급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조직에서 받는 물질적, 인격적 대우와 보상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

분배 정의의 필수 원리는 형평(equity), 평등(equality), 필요(need)이다. 분배 정의가 잘 확립된 조직에서는 이 세 원칙을 적절히 잘 섞어서 사용한다. 분배 정의의 세 가지 필수 원리를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물론 조직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

분배 정의에 입각한 조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① 분배 정의의 필수 원리 세 가지를 염두에 두되, ② 전략적 목표와 상황에 부합하는 원칙을 세우고, ③ 이를 투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 및 실행함으로써(스토리텔링), 공정한 조직 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과 합의를 높여야 한다.

절차 정의(Procedural Justice)는 의사결정의 ‘과정’이 공정한지를 다루는 개념이다. 절차 정의는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자존감/자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과 구성원 간의 관계를 공고하게 다져주는 역할을 한다. 절차 정의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공정 절차 효과(fair process effect)’는 성과에 부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해도 결정을 내린 절차가 공정했다고 판단되면 부정적 반응이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절차 정의의 필수 원리는 대표성(representativeness), 일관성(consistency), 편견으로부터의 독립성(bias suppression), 정확성(accuracy), 수정가능성(correctability), 윤리성(ethicality)이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간과되는 것이 수정가능성이다. 수정가능성은 결과가 불공정하거나, 절차가 불완전하거나 착오가 있었을 때, 조직 구성원들이 이에 관해 목소리를 내고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뜻한다. 구성원들이 불공정한 절차 개선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도 절차 정의에 포함된다.

관계 정의(Interpersonal Justice)는 직장 생활 전반에 걸쳐 정의와 공정성의 원리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관계 정의는 단지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장, 혹은 상사와 맺는 관계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동료들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과의 관계와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인격적 존중, 그리고 표현의 적합성(부적절한 언사 배제)을 핵

심 원칙으로 두는 관계 정의가 실현하는 가치는 인간에 대한 존중(respect)과 존엄(dignity)이다. 그래서 관계 정의는 종종 인권, 사생활 보호, 심리적 안전감과 같은 보편적 권리와 연결되어 논의되기도 한다.

관계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 부적절한 언행, 예의/규범에 어긋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제때에 답변을 하지 않는다든지, 비난을 하거나 은근히 모욕감을 준다든지, 편견이 담긴 표현을 하는 것 등까지 포함한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런 가치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부당하다고 느낄 뿐 아니라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도 대부분 이 영역에 속한다.

정보 정의(Informational Justice)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필요한 설명이 제대로 제공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중요한 의사 결정을 전달할 때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그리고 온전한 내용을 당사자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정보 정의의 필수 요소는 정당성(justification)과 진실성(truth)이다. 어떤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때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설명이 따라와야 하고, 해당 의사 결정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생략되지 않고 빠짐없이 공유되어야 한다.

정보와 지식이 업무의 핵심을 차지하는 기업 환경에서는 정보 정의가 특히 중요하다. 자율 출퇴근제를 채택한 스타트업, 혹은 여러 오피스에서 흩어져서 일하거나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를 활용하는 기업은 서로의 시간과 장소가 겹치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각 직원들이 접근하고 경험하는 정보의 양과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일하는 스타트업은 더욱 그렇다. 이런 업무 환경에서 정보 정의의 역할은 더욱 결정적이다.

관계 정의와 정보 정의에 있어 조직 구성원들이 이 두 가치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일상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에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주의를 기울이는(mindful) 문화가 정착되면 조직 문화 전반에 걸쳐서도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리라 생각한다.

8강

비례적인 권리와 반비례적인 사랑

김원영

변호사/공연예술가. 대학에서 사회학과 법학을 공부하고 로스쿨을 졸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법인 덕수 등에서 일했다. <사랑 및 우정에서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인정투쟁: 예술가 편>, <무용수-되기>등의 공연에 출연했다. 지은 책으로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희망 대신 욕망』, 『사이보그가 되다』(공저)가 있다.

‘사랑’과 ‘공정’은 도대체 만날 수나 있는 개념일까? 우리는 일상에서 우정이든 사랑이든, 누군가를 친밀한 관계의 대상으로 선택함에 있어 누구보다도 차별적으로 행위한다. 우리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조건과 속성 등을 따져보는데, 그것은 공정함과 거리가 멀다. 그런데 그런 행위에 대해 주로 개인적인 비판을 하지 공적인 담론의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다. 사랑이란 서로에게 모든 기회와 에너지를 쏟아부을수록 더 뜨겁다(로맨틱한 사랑이 특히 그렇다). 사랑은 본래 차별적인 관심이다.

SF 작가 테드 창이 소설 “외모지상주의에 관한 소고”에는 인간이 서로의 몸(얼굴)을 무차별하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기계 ‘칼리그노시아(칼리)’가 등장한다. 어느 학교에서 모든 재학생에게 칼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학칙 개정안을 투표에 부치자 이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칼리를 착용하면 서로의 내면적 가치에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칼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칼리에 의존해 몸의 차이를 간단히 소거하려는 전략은 미성숙한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외모가 특별히 아름다운 사람의 존재를 바라보는 일도 가치 있는 경험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소설 속에서 아름다움은 ‘공정’과 대립하지만, 하버드대학교의 일레인 스캐리는 공정함에 대한 우리의 심리적 반응이 우리가 아름다움을 지각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대체로,

적정하게 비례적이고 대칭적인 사물이나 인간을 바라볼 때 편안하고 아름답다고 느끼듯, 공정에 대한 감각 역시 비례성과 대칭성에 대한 우리의 감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비례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데(예를 들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연습을 게을리하고도 열심히 연습한 사람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경우), 그 불편함은 우리가 비례적이지 않은 것을 바라볼 때 느끼는 어떤 심미적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함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fairness'는 유럽어에서 '아름다움'이나 '어울림'을 의미하는 어근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에 비추 본다면, 우리가 적절한 비례성에 대해 느끼는 안정감이나 쾌감은 아름다움과 공정함이라는 두 가치 모두의 근거일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헌법의 평등원칙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만을 금지한다. 이러한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비례성을 심사한다'고 표현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 각각의 자격에 비례하여 차등대우를 하는 것. 이것이 자유주의 헌법의 평등원칙에서 근간을 이룬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 국립발레단이 공연 오디션 공고를 내면서 '키 170cm 이상, 신체 건강한 무용수'라고 자격요건을 내 걸었다. 이 지원공고를 우연히 본 장애를 가진 사람이(그는 장애로 인해 직접하여 보행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하자) 지원서를 냈고 국립발레단은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서류전형에서 탈락을 통보했

다. 이것은 차별금지법에 반할까? 이러한 대우는 ‘공정’하지 않은가?

국립발레단의 조치는 몇 가지 점에서 따져볼 소지(오디션 기회 조차주지 않은 것, 오디션 자격의 모호성 등)는 있지만 발레 공연의 주요 레퍼토리를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이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바꾸어 말하면, 용인되는 ‘공정한 차별’이라는 뜻이다.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판사가 있을 수 있을까? 지금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적이 있었다. 1982년에 사법연수원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도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는다는 이유로 판사에 임관되지 못한 지체장애인이 있었다. 대법원은 판사라는 사회적 지위에 요구되는 신체적 ‘품위’를 이유로 들어 장애인 법관의 임용을 거부했다.

시각장애인 판사는 IT 기술의 발전과 시험제도에서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2000년대 중반 등장했다. 한편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사법부는 시각장애가 있는 판사가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보조인력, 사건자료의 디지털화, 업무시간 조정 등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편의 제공이 능력에 ‘비례하여’ 자격을 배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법관(판사)의 역량은 사건을 특정 시간 동안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만 있을까? 우리는 법관의 자격을 동질적인 환경에서 개인이 보여주는 기능적 수

월성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특정한 환경을 조성한 가운데서 발휘되는 무엇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시각장애가 있는 법관은 특정한 환경 속에서 다른 법관들과 유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거나, (지나친 낭만화는 경계하더라도) 비시각장애인 법관들이 하지 못하는 추론과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발레와 같은 예술의 영역에서는 어떨까? 사법부라는 업무현장보다 훨씬 더 폭넓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발레라는 제도의 전통을 변화시키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해체하고, 발레적 기교와 탁월함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시각장애인 판사가 사법부에서 활약할 수 있듯이, 국립발레단에서 활약하는 ‘걸지 못하는’ 발레리노가 탄생하기를 기대할 수 없을까? 과감하게 기존의 틀을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공정의 기준’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공정의 기준을 과감하게 재구성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상상하면서, 다시 사랑이라는 주제로 돌아오자. 우리 모두가 모든 분야에서 탁월함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진다(즉 공정의 기준이 충분히 다원적이라면) 모두가 각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믿음이 지배적인 시대에는, 탁월성이란 무엇인지가 의문에 부쳐질 수도 있다(도대체 뛰어난 발레리나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는 특정한 탁월성을 절대시하고 인간을 그 아래에 줄세우는 질서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사랑에 관해 말한다면 한계도 있다.

오토바이 정비공이자 철학자인 매튜 크로퍼드는 우리가 타

인과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진 ‘우월한 것’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분별함 없이 멀리서 투사되는 평등주의적 공감은 주의(attention)보다는 원칙에 입각해 있다. 대상의 인간됨을 목격하지 않고 상정하는 것에 만족한다. 하지만 이런 공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총칭적으로 인식되는 것 이상을 바란다. 그는 개인으로서 보여지기를 원하며 특정한 탁월성이나 기술을 연마함으로써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애쓴 바로 그 측면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한다. 우리 모두 구별되기 위해 애쓴다.”고 말한다.

당신과 나는 우리의 다양한 기질과 배경, 재능과 관심사가 다양한 ‘공정의 척도’하에 온전히 평가받는,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를 꿈꿀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누구도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절대 똑같아 질 수 없는 고유성을 위해 각자의 탁월함을 추구해간다. 그 분야는 물론 종이접기부터 감자전부치기, 발레에 이르기까지 무척이나 다양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와 진정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 어떠한 경우든 지극히 차별적인 존재가 되고자 꿈꾼다는 것이다.

도무지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도 타인의 외모와 성격과 태도를 ‘평등주의적으로’, ‘공정하게’ 환대하는 것은 우정과 사랑이 아니라 타인의 개인성에 대한 무시에 가까울 것이다. 우리가 교육, 노동, 정치참여 등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차별 없이, 우리의 보편적인 시민권과 각자의 역할에 비례하여 할당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가 사랑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비례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사소한 탁월성을 터무니없이 크게 확대해서 마침내 한 개인의 고유성에 완전히 빠져들고 마는, 반비례적인 무엇일 것이다.